

# 서울의 고령친화 지역사회전략 정책토론회

| 일시 | 2017년 10월 13일 | 장소 | 서울연구원 대회의실

# 고령친화 지역사회전략 정책토론회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여 '서울형 고령친화 지역사회'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서울시의 과제를 논의

행사개요

- 행사명 : 고령화시대에 대응하는 서울형 지역사회전략 정책토론회
- 일 시 : '17. 10. 13.(금) 15:00~17:30
- 장 소 : 서울연구원 대회의실

세부일정

사회: 손창우 박 사 / 서울연구원

시 간	세 부 일 정
14:30~15:00	참가자 등록
15:00~15:30	주제발표
15:00~15:10	- 개회사(서왕진 원장님)
15:10~15:25	- 발표 1: 노인일상, 노인보행을 고려한 지역계획이란 무엇일까?(박소현)
15:25~15:40	- 발표 2: 서울시50플러스 정책이 걷는 길(남경아)
15:40~15:55	- 발표 3: 서울노인의 동네생활 들여다보기(안현찬)
15:55~16:10	- 발표 4: 고령친화적 지역사회 구축 사례와 방향(백선희)
16:10~16:30	휴 식
16:30~17:30	종합토론 - 고령친화적 지역사회 구축을 위한 서울시의 과제와 전략 방향 • 좌 장 : 김기호(서울시립대) • 토론자 : 정은하(서울시복지재단) 황남희(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용수(광진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유대기((사)활기찬인생2막 대표) 김복재(서울시 어르신복지과 과장) 발표자 전원

‘서울의 고령친화 지역사회전략’ 정책토론회

- 목 차 -

발표1: 노인일상, 노인보행을 고려한 지역계획이란 무엇일까?(박소현) ..... 5

발표2: 서울시50플러스 정책이 걷는 길(남경아) ..... 17

발표3: 서울노인의 동네생활 들여다보기(안현찬) ..... 31

발표4: 고령친화적 지역사회 구축 사례와 방향(백선희) ..... 59

**[발표1]**

**노인일상,  
노인보행을 고려한  
지역계획이란 무엇일까?**

박 소 현

서울의 미래를 찾다  
 서울의 고령친화 지역사회 전략  
 고령화시대 지역사회전략의 필요성과 과제

## 노인일상, 노인보행을 고려한 지역계획이란 무엇일까? Neighborhood Planning for the Elderly's Daily Lives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박소현  
 Dept of Architec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Sohyun Park  
 Sohyunp@snu.ac.kr

본 발표내용의 일부는 박소현 "2040 서울노인, 동네걷기 희망시나리오" (서울연구원, 2017, 서울의 미래 시리즈 2, 도전받는 공간)에서 인용한 것임

## 2040 서울노인 동네보행, 희망시나리오



# AAIP : Active Aging in Place

대한민국, 빠른 고령화 속도

높은 노인자살률, 높은 노인빈곤률, 낮은 고령사회대비율

대비 없는 초고령사회 빈곤(소득), 질병(건강), 고립(관계) 등 제반 사회문제 직면

초고령사회 대비 공동노력 절실

그런데, 초고령사회의 무엇을 우리는 문제로 보나? 여러 각도에서 조명 가능.

대다수가 원한다는

Aging in Place + Active Living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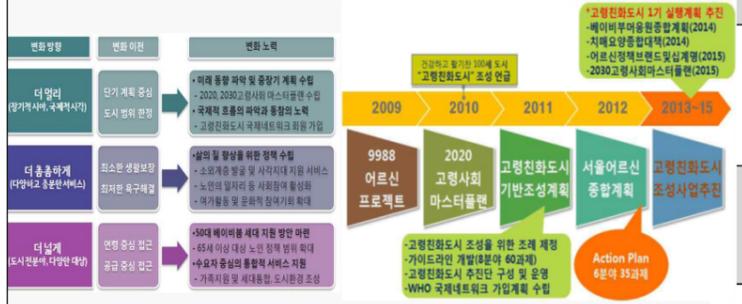
이것의 실체, 그리고 지역사회전략과의 접점 ?



# 서울시 UN 인증 고령친화도시

## 1단계 기본계획 (2013-2015)

서울시 노인복지정책 패러다임 변화 내용



8대 영역	대상사업	정상추진	수정추진	추진미흡
합계	35(100%)	18(51.4%)	11(31.4%)	6(17.2%)
I. 제2인생설계 지원	6	4	1	1
II. 맞춤형 일자리	6	3	1	2
III. 건강한 노후	6	1	5	0
IV. 실기면한 환경	5	3	0	2
V. 활기찬 여가문화	6	3	2	1
VI. 존중과 세대통합	6	4	2	0

8대 영역	실행과제	구입 목적	평가
I. 제2인생 설계 지원	1.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설치	▶신노년층 전문적 지원	수정▲
	2. 신노년층 대상 평생교육 강화	▶신노년층 프로그램 제공	정상▶
	3. 베이비부머 역소프 개회	▶베이비부머 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	정상▶
	4. 전문적 문화자 인제은행 구축	▶고학력 문화자 사회참여 기회 확대	미흡▶
	5. 신노년단체 육성사업지원	▶문화자들의 지속적 사회활동 기회 제공	정상▶
II. 맞춤형 일자리	6. 신노년 정책 자문단 구성	▶어르신당사자 의견 반영	정상▶
	1. 서울형 공공 일자리 확대	▶충만한 공공일자리 제공	정상▶
	2. 민간분야 일자리 발굴 가능 강화	▶민간분야 일자리 확대	미흡▶
	3. 온라인 일자리 전달망구 운영	▶어르신 일자리정보 제공	정상▶
	4. 시니어클럽 및 사회적기업 확대	▶민간일자리 정보 확보	정상▶
III. 건강한 노후	5. 로동 일자리 프사사업 지원	▶도시농촌 노인인력 교류	미흡▶
	6. 어르신 이력 일자리 발굴	▶노인일자리 욕구 대응	수정▲
	1. 민간 자원 연계 플랫폼 구축 확대	▶지역노년자원봉사자 지원	정상▶
	2. 특거어르신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각종 돌봄서비스의 중립 및 사각지대 누락 방지	수정▲
	3. 특거어르신 거주 및 유희공간 조성	▶노년 건강기능 강화 위한 예방적 서비스 제공	수정▲
IV. 실기면한 환경	4. 비수급 어르신 장기요양비 지원	▶저소득층 장기요양 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수정▲
	5. 재가어르신 지원 서비스 강화	▶요양 및 돌봄서비스 저역 노인 간병서비스 제공	수정▲
	6. 노인 자살예방 대책 강화	▶노인자살예방 체계 구축	수정▲
	1. 노인종합복지관 기능 개편	▶변화하는 노인 욕구 대응	미흡▶
	2.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	▶노인복지시설 편의 증진	미흡▶
V. 활기찬 여가 문화	3. 어르신 복지시설 지속 확충	▶노인복지 증가 수요 충족	정상▶
	4. 고령자금을 확대 지원	▶노인 주거복지 수준 향상	정상▶
	5. 특거어르신 지원 주택 공급	▶안정적 주거 서비스 제공	정상▶
	1. 어르신 동아리 활성화 지원	▶취미활동 생활화 여건조성	미흡▶
	2. 신노년 문화프로그램 확대	▶공정적인 노년상 확대	정상▶
VI. 존중과 세대통합	3. 주요관광자원 문화 접근성 개선	▶노인 중심 문화공간 조성	수정▲
	4. 경로당 활성화 지역협력체 구성	▶개별기관 활동 통합 조정	수정▲
	5. 경로당 활성화 코디네이터 육성	▶프로그램 개발, 지역사회	정상▶
	6. 경로당 문화프로그램 지원	▶다양한 경로당 역할 모색	정상▶
	1. 사회적응 어르신 단계 발굴사업	▶어르신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 인식 확산	정상▶
2. 지역사회 내 어르신역할 강화	▶어르신 지역내 역할 정립	정상▶	
3. 고령친화방송 가이드라인 개발	▶고령친화적 관행에서 방송프로그램 내용 개선	수정▲	
4. 세대공감 보코 콘서트 개최	▶세대 간 소통 기회 확산	정상▶	
5. 특거노인-대학생 주거공유 지원	▶주거공유를 통해 세대 간 소통의 분위기 확산	정상▶	
6. 세대융합 문화 예술활동 지원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세대융합 문화활동 추진	수정▲	

고령친화 ?

지역사회 ?

근린계획 ?

연구(understanding)와 실행(action), 간극

근원 질문들:  
우리는 노인을 어떻게 이해하나?  
노인의 삶, 노인의 일상  
노인은 무엇을 원하나?

새로이 알아낸 것을 반영하는 계획방법은 어떤 것일까?



서울시 최초 노인친화가로 시범사업, 종로구 “락희-송해 거리” 서울시, 2016

서울시 <고령친화상점 가이드>



고령친화상점 118곳 지정,

동작구 성대시장과 은평구 신용암시장, 종로구 락희·송해거리에 처음으로 '고령친화상점'이 생겼다. 서울시는 이 지역 118개 상점을 고령친화상점으로 선정해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쉬운 곳으로 꾸민다고 최근 밝혔다. 어르신들이 친숙한 마을에서 오랫동안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나이 들어도 불편함 없이 살 수 있는 '고령친화마을'을 만들기 위해서다.

한겨레신문 서울&, 2017.09.14

새로운 시도가 많다. 그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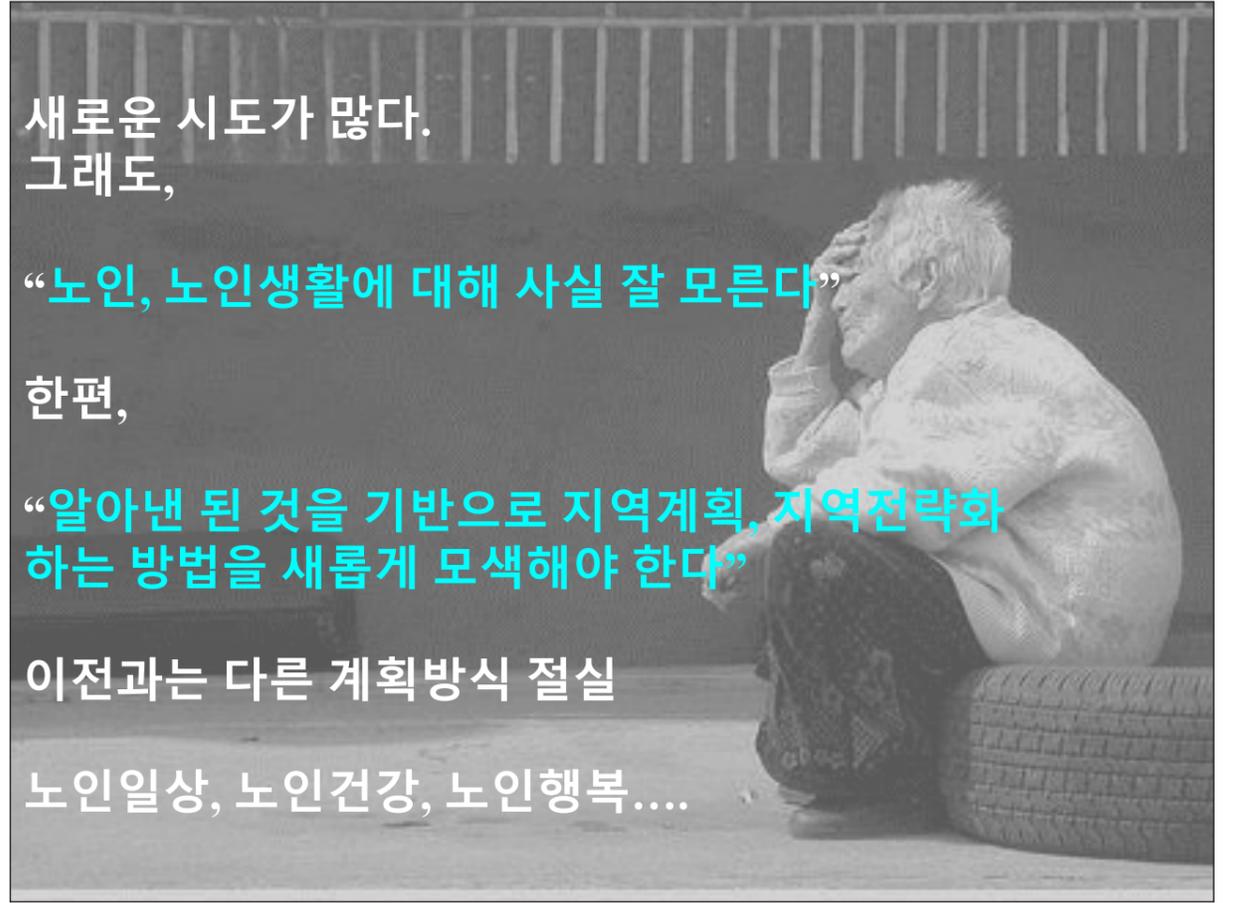
“노인, 노인생활에 대해 사실 잘 모른다”

한편,

“알아낸 된 것을 기반으로 지역계획, 지역전략화 하는 방법을 새롭게 모색해야 한다”

이전과는 다른 계획방식 절실

노인일상, 노인건강, 노인행복....



KB국민카드, 걸을 때마다 포인트 쌓이는 '가온 워킹업카드' 출시

KB국민카드  
가온|워킹업



KIM KOOK MIN

이 카드는 헬스케어 특화 상품으로 웨어러블 디바이스 및 소프트웨어 개발 스타트업인 '직토(ZIKTO)'의 '더챌린지' 앱을 통해 측정된 걸음 수에 따라 포인트가 특별 적립되고 건강 관련 업종에서 포인트 추가 적립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전월 실적 조건과 적립 한도에 제한없이 국내 모든 가맹점에서 0.7%가 포인트로 쌓인다는 게 국민카드 측의 설명이다.

연회비는 1만5000원이며 플라스틱 실물카드 발급 없이 스마트폰에 카드 정보를 등록해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단독카드'는 9000원이다. 카드 발급 신청은 △KB국민은행 및 KB국민카드 영업점 △KB국민카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KB국민카드 고객센터에서 가능하다.

CEO SCORE DAILY, 2017-09-14



노인문제의 3대 요인 선택:

- 고립,
- 신체활동부족,
- 영양불량

이에 대한 현실적 개선 점 하나:

- 노인이 기꺼이 집밖으로 나와 동네에서 걸어 다니며 활동도 하고 밥도 함께 먹을 수 있게 되는 것
- 공간-이동-활동-서비스

동네에서 노인이  
편하게 걸어다니며

밥먹기, 장보기, 공원가기  
도서관, 주민센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근린공간계획

새로운 연구방법론, 계획방법론

노인 일상에 대한 이해가 우선  
DRM, 설문, 통행일지, WakiOn....  
기초조사, 융합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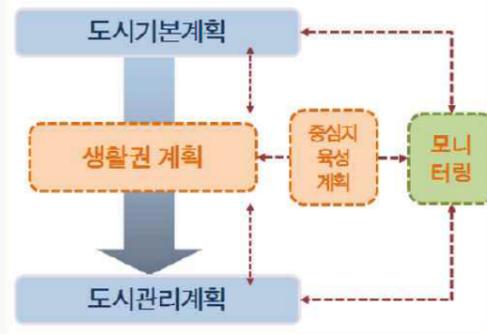
연구기반 가로설계, 주거설계, 단지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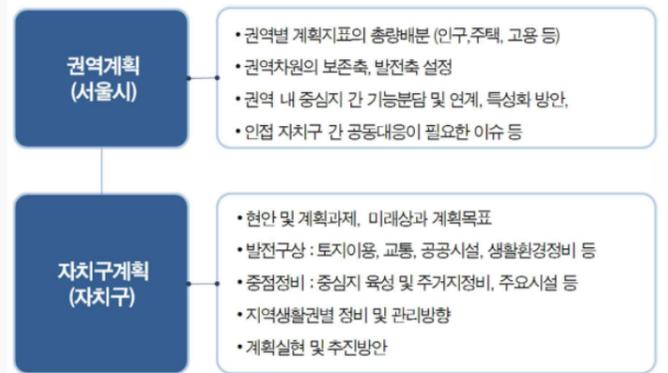
### 계획의 현실화 점점 모색?

▶ 2030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서울형 도시계획체계” 구체화/  
실행방안 마련

- 생활권 및 중심지 계획의 수립/운영방안
- 서울 도시 모니터링 체계구축



서울시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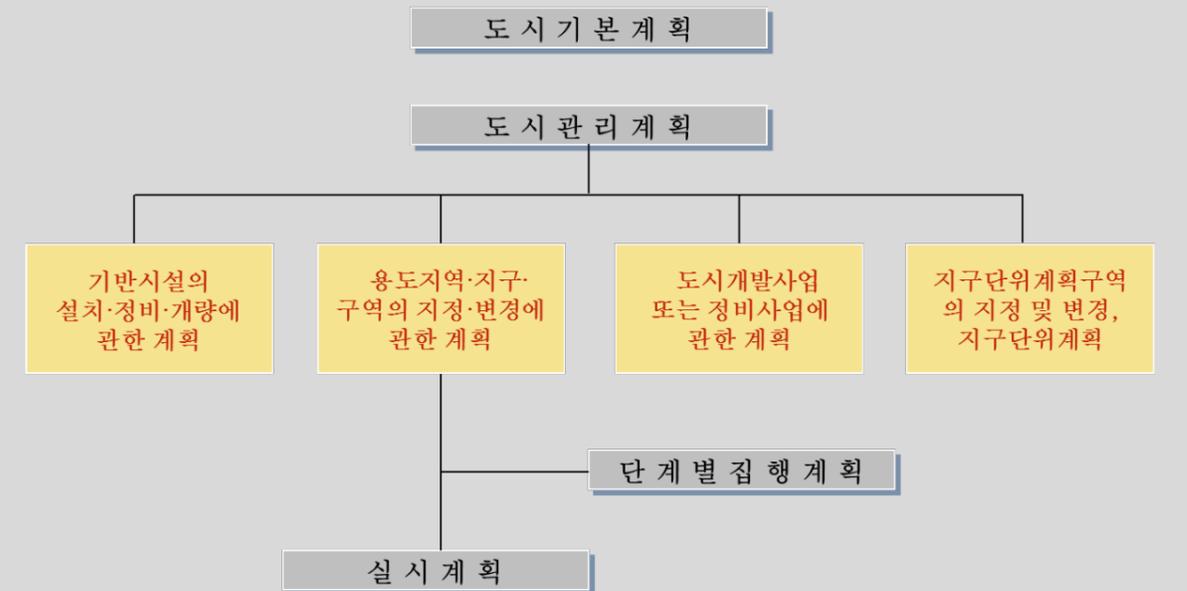
〈그림 3-4〉 생활권계획의 주요내용

주요부문	권역	자치구
중심지	핵·부핵·거점	지구중심·역세권
주거지	주거지 유형별 관리방향	보존·개선·정비방향
교통	광역·간선도로, 권역 간 연계	집분산도로, 보행체계
공원녹지·경관	거점공원, 공원녹지축	근린공원, 생활녹지 연계
역사문화·복지	거점시설, 특성화	지역시설

〈그림 3-5〉 생활권계획 주요부문의 역할 분담



### 계획의 현실화 점점 모색?



국토계획법상의 도시계획체계

## 계획의 현실화 점점 모색?

도시재생  
주거지재생  
골목길재생

주거환경관리사업  
골목상권활성화사업

근린주거지형-  
지구단위계획

마을계획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기획단  
공동체사업  
건강, 복지, 생활서비스



보행행태 및  
보행환경 연구  
근린환경 및  
생활권계획 연구

-고령인구일상생활

-시설-계획-사업  
현황 분석,

-이로부터  
AAIP 계획기법

서비스-공간-참여  
요소로 융합

AAIP  
근린공간계획 모형  
제시

## 분야, 학제 간 협업 실천의 구체적 현실 방안 모색 필요

지식생산구조 + 지역계획체계 연동  
주민 주도, 주민 참여 방식의 가능성과 현실성 점검  
부처간 소통 및 협력의 가능성과 현실성 점검  
지금 방식으로 가능성 있는 해법이 나올 수 없음을 인정하기



살기좋은 동네  
건강한 동네  
걸기좋은 동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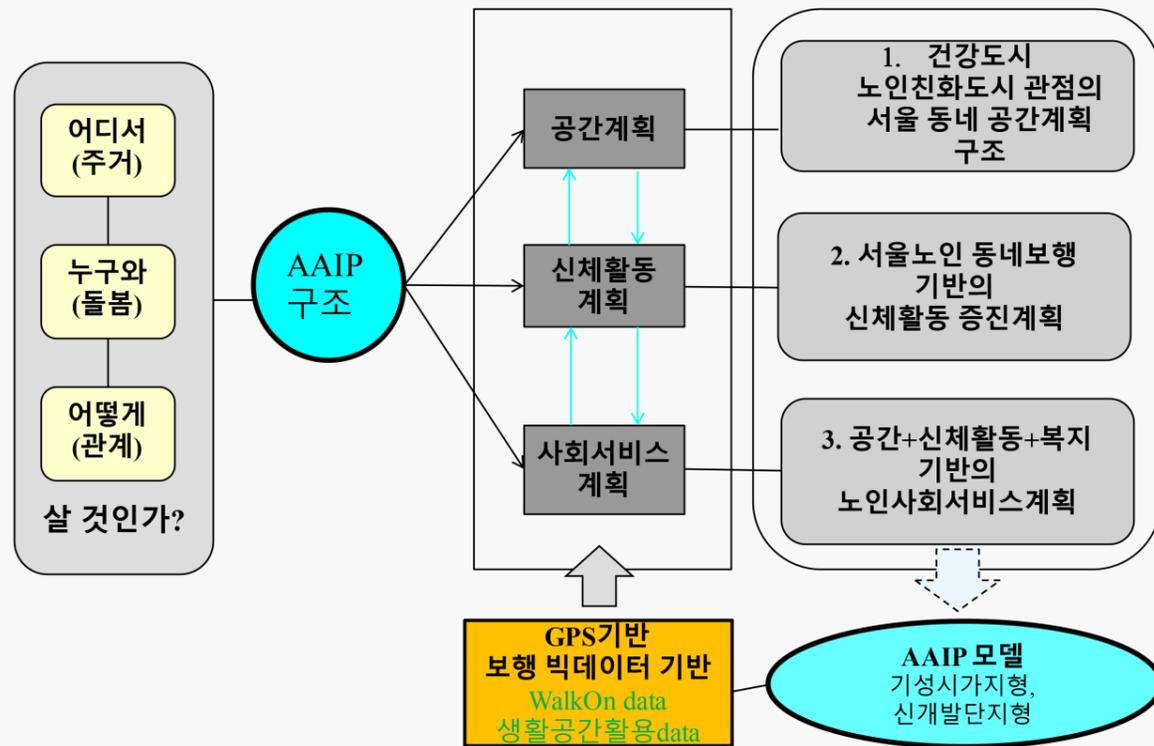
→

지속  
가능  
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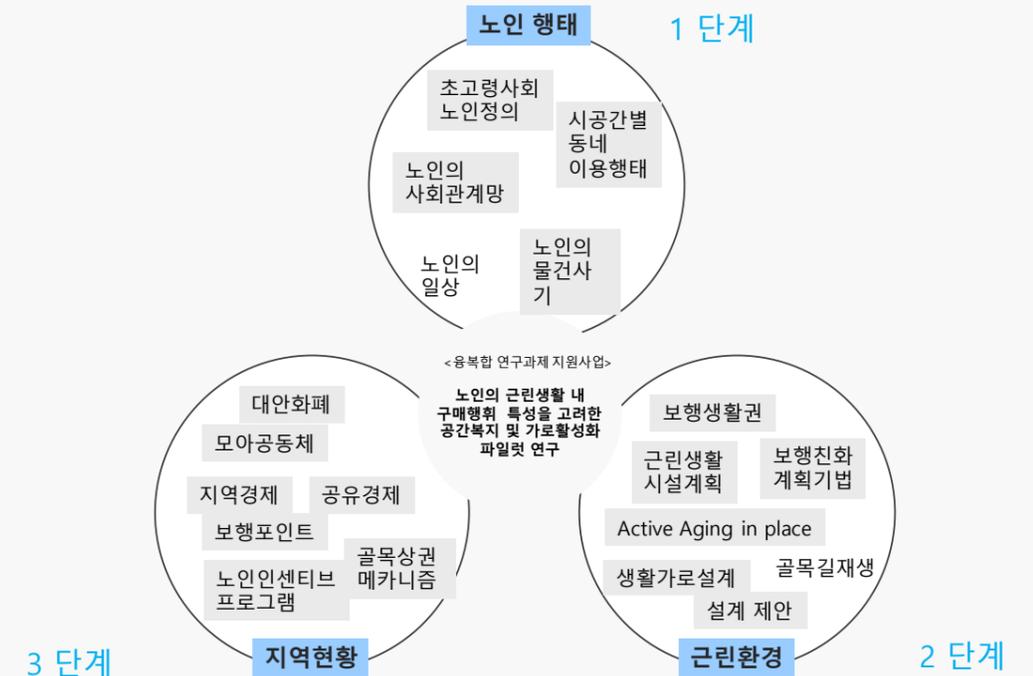


www.seoul.go.kr

## 연구+실행



## 우리 연구실의 연구+계획 숙제 1



## 두려운 책들, 고마운 책들 (부분)

백찬규, 젊은 노인의 탄생, Active Senior, 원앤원북스, 2017  
NHK 스페셜제작팀, 김정환 역, 『장수의 악몽: 노후파산』 다산북스, 2016.  
후지타 다카노리, 홍성민 역, 『2020 하류노인이 온다』 청림, 2016.  
마가렛크룩생크, 이경미역, 『나이들을 배우다』, 동녘, 2016.  
아틀 가완디, 이희정 역, 『어떻게 죽을 것인가』 부키, 2쇄, 2016.  
오시카와 마키코, 남기훈 역, 『집에서 죽음을 맞이하다』 세움과 비움, 개정, 2016.  
이경신, 『죽음연습: 잘 늙고 잘 죽는 것을 넘어 잘 사는 것에 대한 사색』 동녘, 2016.  
김열규, 『노년의 즐거움』 비아, 2009.  
니카노 고지, 장미화역, 『행복한 노년의 삶』 문예출판사, 2003.  
대니얼 클라인, 김유신역, 『철학자처럼 느긋하게 나이드는 법』 책읽는 수요일, 2013.  
도야마 시게히고, 김정환역, 『자네 늙어봤나, 나는 젊어봤네』 예담, 2011.  
사노 오코, 이지수역, 『사는게 뭐라고?』 갤러온, 2013.  
이근후,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 갤러온, 2013.  
츠바타 슈이치, 츠바타 히데코, 오나영역, 『내일도 따뜻한 햇살에서』 청림, 2012.  
클레트 메나주, 심아영역, 『노년예찬』 정은문고, 2013  
시쥬모 사키코, 오희욱 역. 『즐거운 노년』 지혜의 나무, 2006.

## 대표 참고문헌

UN,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UN, WHO, 8<sup>th</sup> Global Conference on Health Promotion: Health for All Policies

서울시, 고령친화도시 기반조성 2011년도 정책자료집, 서울시 복지건강실 노인복지과, 2011  
서울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 복지 기본 조례, 2015  
서울 어르신 종합계획, 서울특별시, 2012  
서울시, 고령친화도시 제1기(2013~1년) 실행계획 평가, 서울시복지재단, 2015  
정홍원 외, 인구고령화의 경제적 영향분석 및 고령화대응지수개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2012

국토해양부, 201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서울시, 서울 2030 도시 기본계획  
서울시, 서울 2025 도시재생 기본계획  
서울시, 생활권계획 관련 자료  
서울시, 보행계획 관련 자료

Sohyun Park et al. (2016), "Physical Activity and the Built Environment in Residential Neighborhoods of Seoul and Seattle: An Empirical Study based on Housewives' GPS Walking Data and Travel Diaries" *Journal of Asian Architecture and Building Engineering*, Vol.15 no.3.

Hyejin Lee et al "Influence of Urban Neighborhood Environment on Physical Activity and Obesity-related Diseases" *Public Health*, Vol. 129, Issue 9, September 2015,

Sohyun Park et al. (2016) "Design Elements to Improve Pleasantness, Vitality, Safety, and Complexity of the Pedestrian Environment: Evidence from a Korean Neighborhood Walkability Case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Sciences*, Vol. 17, No. 1.

박소현 외 (2015), 동네걷기 동네계획, 공간서가  
+++++

## [발표2]

## 서울시50플러스 정책이 걷는 길

남경아

## 서울시50플러스 정책이 걷는 길

남경아 (서울시 50플러스 재단 /50플러스 서부캠퍼스 관장)

최근 주목할 만한 통계 몇 가지

- 201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회통합지표에 의하면 한국은 사회적 관계<sup>1)</sup>부문에 서 10점 만점 중 0.2점. 곤경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을 가족이나 친구가 없다는 답변은 전체의 27.6%로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음. 특히, 50세 이상에서는 40%로 OECD 평균 12%보다 약 30%포인트 가까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 기록
- 2015년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주택 총 조사의 100세 이상 고령자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 100세 이상 고령자는 3,159명, 90대 노인들도 15만 7,000명으로 10년 전보다 3 배 이상 증가. 하지만 장수 노인들의 행복도는 상당히 하락된 것으로 나타남.
- 최근 서울시복지재단에 따르면 2013년 서울지역 고독사 발생 건수(의심 건수 포함)는 2,343건으로 집계. 매일 6.4건꼴 수준. 지역별로는 강남구가 연 156건으로 25개 자치 구 중에서 가장 많았고, 연령별 위험 집단은 40~64세 남성으로 나타남

평균수명의 연장은 어마어마한 혁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UN은 이미 2009년 '세계 인구 고령화 보고서'에서 100세 장수가 보편화되는 호모 헉드레드(Homo Hundred)시대를 표방한 바 있다. 하지만, 위 통계에서도 보았듯이 장수사회와 경제적 풍요가 곧 삶의 질, 행복의 증가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이런 가운데, UN은 이미 2009년에 100세 장수가 보편화 되는 호모헉드레드(Homo Hundred)시대를 표방한 바 있다. 100세 시대는 단지 노년층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인류의 표준적인 생애 주기에 근원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미 서구사회에서는 성인기와 노년기 사이, 새로운 구획과 명명이 필요하다고 판단, 50~60 시기를 별도의 이름으로 부르고 이에 맞는 준비를 해 오고 있다. 우리 사회도 앞으로 멀지 않은 기간 내 학제를 비롯한 사회 시스템에 대대적 변화가 불가피 하다. 100년을 살아야 하는데, 60~70년을 사는 속도와 의식으로 살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장수사회, 고령화라는 거대한 물결의 한 가운데 서 있는 지금, '성공적 노화', '액티브 시니어'에 대한 관심이 높다. 하지만, 건강한 몸과 안정적 경제 상태, 원만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해야 가능한 '성공적 노화'가 보편적 노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 어찌되었건 의료 기술과 생명과학은 점점 더 진화할 것이고, 정부의 정책도 조금씩 발전할 것이며, 노인을 위한 인프라와 콘텐츠들도 더 많이 개발될 것이다. 하지만, 이런 제도적 준비 못지 않게 길어진 인생 주기에서 '노년'을 바라보는 시선, 인식 변화, 노년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하

1) 사회적관계(사회적지원 네트워크): 그 사회 구성원들의 상호 지지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곤경에 처했을 때 기댈 가족, 인구가 있는지를 묻는 말에 긍정적인 답변을 한 사람의 비율을 따져 산출됨.

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지난 10년간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조금씩 싹을 틔우기 시작한 신노년층 사업이 최근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정부에서 제도화 되고 본격적인 '당사자 운동'으로서의 도전과 실험이 펼쳐지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 □ 당사자 운동에 입각한 서울시50+재단과 캠퍼스의 실험

서울시는 50+세대와 사회의 공유가치 창출을 위한 한국형 양코르 커리어의 발굴과 확산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다. 2012년 서울시는 국내 최초로 중장년층을 위한 인프라를 건립하고, 인생이모작 지원 사업을 본격화했다. 그리고, 민선6기 출범 직후인 2014년 하반기부터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발돋움 하기 위해 약1년 6개월에 걸쳐 행정조직 개편<sup>2)</sup>, 인생이모작지원단 발족 등 중장년층 연구와 욕구조사, 콘텐츠 개발, 관련 법 제정에 박차를 가했다. 그 결과 2016년 6월1일 서울시 인구의 약 30%를 차지하는 중장년층을 위한 종합 콘서트 타워로 서울시50+재단<sup>3)</sup>이 출범했다. 또한 50+재단의 가치와 철학, 콘텐츠가 실현될 현장으로 '50+캠퍼스' 2곳<sup>4)</sup>이 오픈, 약 1년6개월에 걸친 파일럿 실험을 마쳤다.

서울시의 이러한 실험은 이미 다른 지방정부로 확산, 부산광역시에서 부산시 '50+세대 행복문화 창출을 위한 베이비부머 생애재설계 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50+프라이م 센터' 건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한, 울산광역시에서도 2015년부터 베이비붐 세대의 인생설계를 돕는 허브 조직으로 '내일설계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교육, 재취업,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50플러스재단은 50+세대의 새로운 인생 비전을 창조하는 싱크탱크이자 네트워크 허브로 서울시 50+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다. 재단은 연구 활동으로 정책을 제안하는 한편, 서울시 6개 권역에 설립되는 50플러스캠퍼스를 통해 교육과 상담을 시행하고, 50+세대 일자리 관련 사업을 펼친다. 또한, 50+세대가 자율적으로 기획한 활동과 커뮤니티 활동 등을 지원한다. 각 자치구에 위치한 50플러스센터가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서울50플러스재단은 시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재단-캠퍼스-센터 간의 적절한 역할분담으로 체계적인 50+세대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재단은 거대담론 보다는 구체적인 현장을, 정책 공급자보다는 수요자를 중시하면서 연구 활동과 여타 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 재단이 지향하는 기본적인 사업 방향은 다음과 같다.

- 2) 서울시는 2014. 4월 어르신 복지과 내 베이비부머 정책팀 신설 이후, 2015년 1월 1일 복지본부 내 '인생이모작지원과' 로 확대
- 3) 서울시50플러스 재단 설립 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서울특별시 50플러스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4) 1호 캠퍼스 서부캠퍼스 (은평구 불광동 소재) 2016년 5월 개관  
2호 캠퍼스 중부캠퍼스 (마포구 공덕동 소재) 2117년 3월 개관

- 실사구시(實事求是): 현장기반, 수요자 중심의 연구와 정책 실행력 강화
- 인식 전환 운동(movement): 단순 정책 서비스 제공의 사업방식을 지양하고, 50+세대의 삶과 사회의 인식을 바꾸는 일상 캠페인 시행
- 통섭과 융합: 사람, 기관(조직), 행정, 자원의 공유와 연계
- 국제적 사고 및 지역적 활동(Think Globally Act Locally) : 국내외 혁신 사례 벤치마킹, 지역 맞춤형 적용

또한, 서울50플러스재단은 재단이 표방하는 가치의 실천과 기존 정책과의 차별화를 위한 전략으로 '당사자 운동'의 철학을 적극 수용하려 한다. 당사자 운동이란 '자신의 문제는 자신이 해결한다'는 의지를 기초로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권리를 지키기 위해, 지역의 일원으로 일하기 위해 직접 이해당사자가 스스로 뭉쳐 해법을 모색하는 움직임을 말한다. 당사자가 주도하는 운동은 거대 담론을 지양하고, 생활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공통의 문제를 다룬다. 당사자가 발상의 전환을 통해 스스로 해법을 모색하는 일상의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당사자 운동은 목표가 매우 구체적이며 특정 이념에 갇히지 않는다. 뚜렷한 위계질서를 강조하지 않는 자발적 커뮤니티의 다양한 실천이 당사자 운동의 기반이다. 서울50플러스재단은 50+세대 당사자 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50+세대가 커뮤니티를 이뤄 스스로 자신의 문제의 해법을 찾도록 지원하는 것을 활동의 핵심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50플러스재단과 1호 캠퍼스인 서부캠퍼스를 중심으로 지난 1년간 펼쳐진 도전과 지원사례를 크게 교육, 일자리, 연구, 상담으로 나눠서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 50+교육

대부분의 사회 운동 주체가 대중의 인식을 바꾸고 운동의 지향점을 더욱 많은 이에게 전파하기 위해 선택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은 교육이라 할 수 있다. 또한, 50세 전후로 직장에서 퇴직해 경력단절의 위기를 맞이한 이들은 남은 인생을 위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때 잘 설계된 교육 과정은 생애 전환기를 맞은 50+세대가 자신감을 갖고 새로운 삶을 준비하도록 돕는 기제를 제공할 수 있다. 교육은 50+세대가 새로운 관계망을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한다. 함께 공부한 동료 중에서 미래의 동업자와 조력자를 만날 수 있고, 이러한 만남은 50+세대의 남은 인생의 방향을 바꿀 정도로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이런 이유로 재단이 경영하는 50플러스캠퍼스에서는 50+세대가 새로운 삶의 모델을 안내받고, 체계적으로 이를 준비할 수 있도록 50+세대 맞춤형 교육 과정을 설계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교육 과정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50+세대 관련 단체와의 파트너십 형성, 강의식·주입식 교육 지양, 교육과 일·활동의 연계, 다양한 시민의 참여와 편의성 제고 등을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다.

## 세 개의 학부

50플러스캠퍼스는 일반 대학교의 학사 운영 체계를 벤치마킹해 학기제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1학기(3월~6월)와 2학기(9월~12월), 여름학기(7~8월)와 겨울학기(1~2월)로 나눠 학기별로 수강생을 모집한다. 50플러스캠퍼스에는 세 개의 학부가 존재한다. 수강생이 개인의 관심과 선호, 저마다의 상황에 따라 원하는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각기 교육의 내용과 목표를 달리하는 세 개의 학부를 두었다. 일본 릿쿄대 세컨드 스테이지 칼리지의 학제에서 영향을 받은 결과이기도 하다. 세 개의 학부는 다음과 같다.

- 인생재설계학부: 삶과 노후에 관한 인식을 전환하고 새로운 삶을 설계하는 학부
- 커리어모색학부: 일의 의미를 정립하고 새로운 커리어 경로를 모색하는 학부
- 일상기술학부: 자립적이고 즐거운 일상에 필요한 필수 생활기술을 연마하는 학부

〈그림1〉 50+캠퍼스 커리어모색학부 발굴 과정

수요기반	예시	50+도시민박창업 길라잡이
	서울시관광체육국	50플러스캠퍼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시민박업 추진 과정 중 50+세대 참여 미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가주택비율이 높은 50+세대 활용, '50+도시민박창업 길라잡이' 개설 (30명 교육 중) → 도시민박업을 통한 50+일자리 모델 제시</li> </ul>
유망직종 직업 탐색	예시	50+여행기획 학교
	현황	50플러스캠퍼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령화 시대, 맞춤형 여행에 대한 니즈 높음</li> <li>국내공정여행시장 유망직종 부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정여행 상품기획에서 실제 운용까지(현장탐방+여행상품 개발답사 포함) → 30명 교육 중</li> <li>조별 여행기획안 실행 발표 → 우수팀은 캠퍼스에서 여행기획자로서 도전, 실험의 기회 제공</li> <li>중장기적으로 '50+공정여행협동조합' 설립 지원</li> </ul>
일자리 시장 확대	예시	귀농·귀촌 입문과정, 50+오디세이 농촌탐방
	현황	50플러스캠퍼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에서의 삶, 새로운 창작 분야에 대한 욕구</li> <li>지자체의 지원정책에 대한 실질적 정보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0+귀농귀촌 입문과정'·'50+오디세이 농촌탐방' 진행 중</li> <li>지방정부와 협력, 실질적 정보제공 및 체험</li> <li>지역에서의 새로운 직업 탐색, 창작 모델</li> </ul>
	예시	국제개발과 사회적 경제
	현황	50플러스캠퍼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외 봉사, 제3세계 창업에 대한 관심 높음</li> <li>국제개발 분야에서 대안적 경제 활동 욕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제개발과 사회적경제 과정 개설 → 20명 교육 중</li> <li>입문과정과 해외실사 과정 병행</li> <li>수료 후에도 국내외 활동계획과 해외 네트워크 연결 지원</li> </ul>

## ▶ 50+일자리

50+세대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이슈는 뭐니 뭐니 해도 '일자리'지만, 이 세대에게 '일'은 '밥'과 '존재'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즉 현재의 50+세대에게 일자리는 소득보존의 수단이자 존재의 이유로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수단의 의미로 접근해서는 곤란하다. 50+세대를 일자리 취약계층으로 바라보는 기존 관점에서 벗어나 사회의 각종 문제해결을 위한 자원으로 바라보고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 이런 전제하에 서울시

50+재단의 일자리의 조건과 방향, 전략은 다음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포화상태인 단순 생계형 일자리에서 개인의 보람, 사회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새로운 일자리 모델 수립. 이를 위해 섹터·지역·세대간 협력과 연대가 필수다.

〈그림2〉 50+일자리 방향과 전략



출처 : 서울시50+재단(2016) 일자리 본부 내부자료

둘째, 50+세대에 적합한 수요 모델 발굴과 함께 그 수요에 적합한 50+인재의 확보와 육성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전직을 위한 교육 커리큘럼과 플랫폼의 혁신이 필요하다. 단기적인 위주 교육이 아닌, 자기를 돌아보고 목표 설정에서 출발하는 현장 중심의 교육이 필요하다. 또 교육 후 실천 경험과 자기 검증을 할 수 있는 인턴십이나 인큐베이팅의 과정이 체계적으로 연계 되어야 한다. 이런 면에서 서울시 보람일자리는 매우 효과적이다.

## 서울시 보람일자리

50+세대가 자신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해 사회에 공헌하고, 새로운 사회참여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서울시의 공공일자리 사업. 50+세대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제 임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새로운 커리어를 탐색할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공헌 일자리 사업이다.

- 대상: 만 50세~67세 서울시 거주자
- 활동조건 / 지원사항: 월 57시간 이내 활동 / 월 427.5천 원
- 의의: 새로운 일·일거리 경험 및 모델 제공, 교육과 실제 일자리 사이의 틈을 줄이는 디딤돌 역할

〈그림3〉 2017년 보람일자리 추진 현황 (8월 기준)

분류	사업명	캠퍼스(활동)	사업내용
사회서비스	쪽방상담소지원단	#중부(5월)	•서울시내 쪽방상담소방문간호 서비스 동행 및일상생활 지원
	장애인직업재활지원단	#중부(6월)	•장애인직업재활 시설내 장애인 활동 보조 서비스
	우리동네 맥가이버	#서부(7월)	•지역내취약계층의 단열, 전기적업 등 주거환경 지원서비스
	IT서포터즈	#중부(7월)	•비영리단체 업무용 PC유지보수 및 수리
세대통합	50+ 취업지원관	#서부(3월)	•특성화고교 학생대상 취업처 발굴 등
	학교안전관리서포터	#서부(5월)	•학교 및 공공시설 안전관리서포터 파견
	한지붕세대공간코디네이터	#서부(8월)	•서울시 장년층 - 대학생 룸세어링 사업 지원
	행복도사락 나눔 지원단	#중부(6월)	•취약계층 도사락 배달 지원
당사자 지원	50+ 컨설턴트	#서부(2월)	•재무, 경력개발, 여가, 건강 등분야별 컨설팅
	50+ 모데레이터	#서부(2월)	•맞춤형 학습설계, 교육운영 지원 및 모니터링, 사업운영지원
	50+ NPO 펠로우십	#서부(8월)	•역량 있는 50+들이 자신의 경험을 활용해 NPO현장에서 활동
	50+ 기자단	#중부(7월)	•50+세대를 위한 정책과 정보 등 콘텐츠 생산 및 보급

셋째, 플랫폼 측면에서 50+일자리 수요와 그에 적합한 50+세대 간의 보다 정교한 매칭이 이뤄져야 한다. 효과적 매칭은 시스템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수요와 공급 양측을 이해하며 매칭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손길이 필요하다. 여기에도 50+세대 당사자들이 매칭 코디네이터와 멘토로 역할을 할 수 있다.

▷ 당사자 연구 : 50+자기 삶의 연구자가 되다

지금까지 노년담론의 생산은 당사자의 몫이 아니었다.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타자화 되고 관찰당하는 대상으로 매체에 나타났다. 그래서 지금의 50+세대는 스스로의 목소리를 낼 줄 아는 최초의 노년세대로서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지닌다. 따라서 노년담론의 생산자가 연구자에서 '당사자 자신'으로 바뀔 수 있는 경험과 기회 제공이 중요하다.

서울시50+재단은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50+시민연구자그룹(단체,개인)을 지원하여 체감도 높은 이슈 발굴과 구체적 현실에 기반한 '당사자주도형 연구사업' 추진하고 있다. 2016년 '50+당사자 연구'사업에는 총 48개 단체(또는 개인)가 지원, 이중 6개 주제를 선정(경쟁률 9.6:1)했다. 매월 스터디 모임을 통해 연구진행상황을 공유하고 전문가와 참여자 간 집단지성을 통해 연구주제를 심화 시켜 나가고 있다. 하반기 국제 컨퍼런스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연구결과물을 단행본으로 제작할 예정인데, 그 결과가 주목된다.

〈표1〉 2016년 50+재단 당사자 연구

no	연구주제	수행단체
1	고령사회 실용적 노후주거의 대안으로써 시니어 공동체 주거 공간 확보 및 구성방안 연구	더함플러스 협동조합
2	제3섹터 앙코르 펠로우십 연구	앙코르브라보노 협동조합
3	참여적 방법을 이용한 50+세대의 미래 인식과 이머징 이슈 조사	한국미래전략 연구소
4	50+시민사회 활동가의 건강한 제2의 일자리 창출연구 : 환경운동을 중심으로	이상현, 이정수, 김래영
5	FTA전문가로 육성된 전문직 퇴직자들의 중소기업 컨설팅 수행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연구	이창우, 조연미, 조현성
6	도농상생(도시재생과 농촌 르네상스)에 기반한 시니어들의 고용, 창작, 창업 사례 연구	(사)청미래재단

출처 : 서울시50+재단(2016) 내부자료

▷ 50+상담센터 : 당사자들의 참여와 연구로 이루어지는 실험의 장

50+상담센터는 서울시 50+정책의 차별화, identity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핵심 사업이다. 기본적으로 교육+일자리+여가+재무+라이프 플랜까지 원스톱 종합상담센터를 지향하며, 단순 상담기능을 넘어 상담센터의 주요 내용이 이후 서울시 50+정책과 사업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포지셔닝을 차지한다.

또한, 50+상담센터의 차별화된 운영모델, 콘텐츠 개발에 다양한 50+당사자 그룹(개인)들이 주체로 참여하면서 집단지성에 의한 새로운 상담센터 모델을 시도하고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50+컨설턴트는 50+정책 수행의 주요 구성원으로 생애설계 전문 상담 외 다양한 연구와 현장조사를 기반으로 실효성 높은 정책추진에 한몫을 담당하고 있는데, 향후 이들의 구체적 활동과 성과가 당사자 운동으로서 잠재력을 진단해 볼 수 있는 실험대가 될 것이다. 50+컨설턴트가 추진 중인 과제는 다음과 같다.

- 50+세대와 50+정책의 연결자로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중장년층 정책, 제도를 수요자 관점에서 조사하고 개인별 맞춤형 정책의 안내와 피드백 제공
- 50+정책 수행의 구성원으로, 50+세대의 욕구에 기반한 적합 직종 발굴 및 권역기반 50+캠퍼스 지역자원조사로 실효성 높은 교육과정 개발
- 50+세대와 제3섹터 결합의 수요와 공급의 효과적, 효율적 매칭을 위한 시스템 구축 : 개인별 프로파일 구축 및 제3섹터 수요조사



지원 모델 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 **세대 확장**

제2의 인생설계는 비단 50+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 세대 시민의 생애 단계와 조기퇴직이 만연한 현실을 고려해 정책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현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중장년층 정책은 기존 정책과의 중복을 피하고자 연령적 구분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많다.

또한, 50+세대 당사자 역시 50+세대의 운동을 기계적인 연령 구분에 따라 50세 이상인 사람만의 운동으로 인식한다면 소탐대실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50 이후의 삶을 미리 준비하는 30, 40대 직장인, 새로운 시니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젊은 창업가, 50+세대의 삶을 거쳐 먼저 노년기로 접어든 선배 세대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가 50+세대의 운동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 수 있다. 50+지원 정책이나 50+세대 당사자 운동의 결과가 전 세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마을과의 연계**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의 한 관계자는 “중장년층 교육이 다양해지고, 사회참여의 비율이 늘어난 것은 바람직하나, 상대적으로 마을로의 귀환이나 마을공동체에 대한 관심은 적어서 아쉽다”고 말했다. 노후의 삶에서 소득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는 ‘늘어난 여가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리고 그 시간을 누구와 함께할 것인가’라는 질문의 해답을 찾는 일이다. 혈연, 학연, 지연과 같은 기존의 인간관계에 의존할 수도 있지만, 앞서 살펴봤듯 50+세대에게는 공통의 관심과 욕구를 가진 이들과의 새로운 관계망 형성이 중요하다. 이때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에서 동료들을 만날 수 있다면, 상대적으로 매일의 일상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상호부조의 공동체를 가꾸기에 유리하다. 마을에서 50+세대가 잘할 수 있는 ‘일거리’와 ‘활동 거리’를 많이 발굴하고, 이들의 마을 활동을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 **지속성의 확보**

이제 막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50+세대의 당사자 운동이 지속해서 확산하고 진화할 수 있도록 이들의 운동을 뒷받침하는 전문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서울50플러스재단은 교육에서 일자리까지 유기적, 입체적으로 50+세대를 지원하기 위해 50+세대 DB, 온·오프라인 플랫폼, 통합 정보제공 및 매칭 시스템 등의 구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정책과 제도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50+세대 스스로 인생 후반의 삶과 일에 관한 인식을 전환하고 준비하는 노력이 전제되어야 50+세대의 운동이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일례로 양

코르 커리어 운동의 정착을 위해서는 50+세대가 새로운 일자리 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 나이 어린 동료나 상사와 소통할 수 있어야 하고, 새로운 일자리의 대부분이 중 소규모 기관이나 조직에서 창출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직접 다양한 실무를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을 습득해야 한다.

〈참고문헌〉

- 김만희(2016). 50+세대를 위한 일자리의 조건. 서울시50+재단  
남경아외(2014). 서울시50플러스 재단 및 50플러스 캠퍼스 설립 추진 연구보고서.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  
남경아외(2016). 나이듦 수업. 서해문집  
남경아 (2017) 50플러스세대 : 오십 이후 삶이 즐거운 도시. 서울연구원  
안양문화예술재단(2014). 시니어 문화 전문가 포럼 '노년을 거닐다 보고서  
우석훈(2009) 혁명은 이렇게 조용히. 레디앙  
손유미(2014) '베이비붐 세대의 일자리 현황과 과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정진웅(2012). 노년의 문화인류학. 한울아카데미  
정홍원(2015). 50+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희망제작소(2015) 새로운 생애주기 관점으로 파악한 베이비부머들의 욕구 및 지원방안 : 사무직 중  
년층을 중심으로. 희망리포트 연구보고서  
서울시(2015). 50플러스 인생이모작 실태 및 욕구조사  
서울시50플러스 포털 50plus.seoul.go.kr  
서울시50+재단 seoul50plus.or.kr

# [발표 3]

## 서울노인의 동네생활 들여다보기

안 현 찬

## 서울노인의 동네생활 들여다보기



### 1. 연구 배경과 목적

## 우리는 노인을 모른다



## 현장조사 목적은



## 조사 대상지는 어떤 곳인가



## 조사 대상지는 어떻게 선정했는가

구분	강동구 천호3동	광진구 자양4동
고령화율	14.1%	14.2%
물리적 환경	주거: 단독(39.2%)/아파트(58.2%)	단독(61.5%)/아파트(30.0%)
	상업: 천호동 로데오거리, 천호신시장	건대 로데오거리, 영동교 골목시장
	지하철: 강동역(5호선)	건대입구역(2호선), 독성유원지역(7호선)
노인 시설	복지관: 강동종합사회복지관	자양종합복지관(자양3동)
	경로당: 9개	8개
커뮤니티	마을계획단(마을활력소)	광진주민연대, 광사넷
협력단체	강동구 찾동 추진지원단	광진주민연대
	천호3동 주민센터, 강동종합사회복지관	자양4동 주민센터, 자양공공힐링센터(보건지소)
정책 연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 노인이 많이 살고(고령화율 14% 이상), 노인시설도 많은 곳(경로당, 복지관, 보건지소 등)
- 단독주택, 아파트, 상업시설 등이 고루 섞여 있어 행정동 안에서 일상생활이 가능한 곳
- 지역 공동체 활동이 활발해서 고령친화 지역사회 전략의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는 곳

## 조사 내용과 방법은

	면담조사	설문조사
조사목표	• 노인이 생활하는 지역 환경은 어떠한가? • 노인은 동네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	• 노인은 동네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고, 무엇을 원하는가?
조사내용	• 근린시설 이용행태 조사 • 보행패턴 조사 • 건강, 생활시간, 욕구 등 일상생활 정보	• 건강, 경제, 사회적 관계 등 생활 여건과 실태 • 지역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에 대한 만족도 • 지역에서 늙어가기에 대한 욕구와 참여의사 총 37문항
조사기간	• 7월 31일 ~ 8월 11일 (2주간)	• 8월 7일 ~ 8월 11일 (1주간)
조사대상	• 천호3동 거주 어르신 30명 • 자양4동 거주 어르신 30명 총 60명	• 천호3동 거주 어르신 133명 • 자양4동 거주 어르신 151명 총 286명
조사방법	• 1곳당 조사원 6명이 1:1 면담조사	• 1곳당 조사원 8명이 1:1 설문조사

- 고령화 관련 전문 연구자들의 자문과 협력을 구해 조사 설계
- 면담조사 (총 60명) : 근린시설 이용행태와 보행경로 등을 심층 조사
- 설문조사 (총 286명) : 생활 실태와 욕구, 동네 만족도, Aging in Community 의견 등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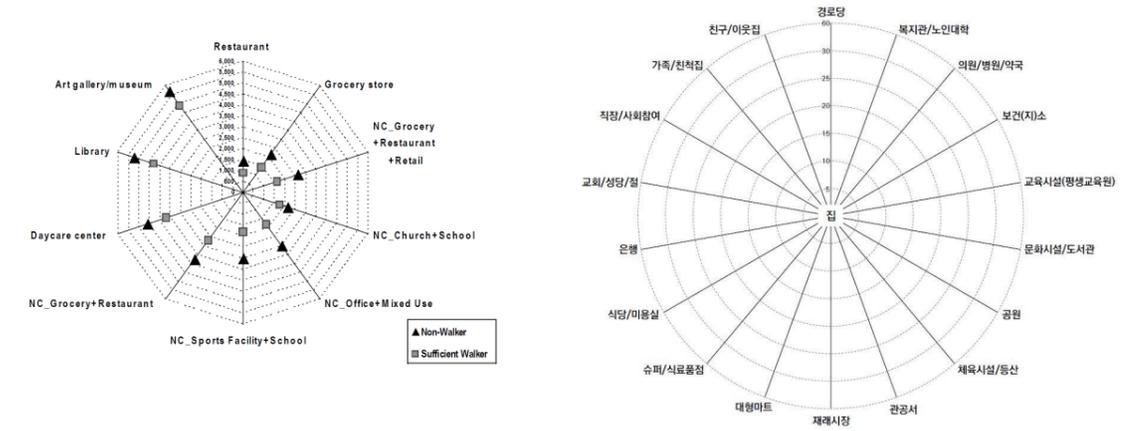
## 일상생활권을 어떻게 파악할까 : 근린시설 이용실태 조사

구분	사실	상호명	주소	방문목적	선택 이유	이용 만족도	주당 방문횟수	함께 한 사람	방문 시각	이동 수단	이동 소요시간	회당 체류시간
별레 (코드)	상세 코드	시설구분	상호명 기입 ※ 피면담자 집주소는 주1회 이상 방문하는 곳 모두 기입	주관식 : 다양한 행위 기술에장보기, 식사, 민원, 약국 중 이 약국을 선택한 이유는? 기 등	주관식 : 다른 많은 이유를 선택한 이유는? 기 등	: 10점 척도(1-10)		1) 혼자 2) 배우자 3) (손)자녀 4) 부모 5) 동년배친구/이웃 6) 동네 밖 친구 7) 서비스 제공자 8) 기타(직접 기입)	1) 새벽(0-6시) 2) 오전(7-12시) 3) 오후(1-6시) 4) 저녁(7-12시) 5) 필요에 따라	1) 도보 2) 버스 3) 자전거 4) 지하철 5) 택시 6) 승용차 7) 기타(콜택시 등)	: 분 단위 예) 7-8분, 35분	: 분 단위 예) 90분
집(A)	(B1) 경로당											
복지시설(B)	(B2) 노인교실/노인대학 (B3) 사회복지관(노인/종합)											
의료시설(C)	(C1) 약국 (C2) 의원(치과, 한의원 포함)											
교육시설(D)	(D1) 평생교육원 (E1) 문화시설(문화센터, 기원 등) (E2) 도서관(민간/공공)											
문화체육시설(E)	(E3) 공원 (E4) 체육시설(요가, 수영, 클라텍) (E5) 등산 (E6) 기타 야외공간(자투리공간) (F1) 관공서(구청, 동주민센터)	한강둔치		운동, 심심해서	아는 곳이 없어서	10	2-3	1	2 (10시)	3	10-15	210
공공시설(F)	(F2) 우체국 (F3) 파출소 (G1) 재래시장 (G2) 대형마트 (G3) 금융기관(은행, ATM 등) (G4) 슈퍼(신선식품/편의점)	노론산시장		구경, 정보기	가까워서	10	3-4	1, 2	2	1	10분 이내	60분 이내
상업시설(G)	(G5) 식당(음식점) (G6) 미용실/이용원 (G7) 옷가게 (G8) 목욕탕(찜질방 등) (H1) 교회 (H2) 성당 (H3) 사찰 (I1) 직장(사무실, 근로장소)	조양마트		손녀장난감구입	물품이 다양해서	10	6-7	1, 2, 3	2, 3	1	10분 이내	20
종교시설(H)	(H2) 성당 (H3) 사찰											
직장(I)	(I1) 직장(사무실, 근로장소)											
교통/기타(J)	(J1) 지하철역 (J2) 버스정류장											
가족/친척/이웃집(K)	(K1) 가족의 집 (K2) 친척의 집 (K3) 이웃집	대동아파트		손주보러, 식사	아들의 집	10	6-7	1, 2	5	1	15	1박도 함

## 일상생활권을 어떻게 표현할까 : 근린시설 스파이더맵

〈 참고사례 : Moundon et al., 2006, p.108 〉

〈 서울노인의 일상생활권 개념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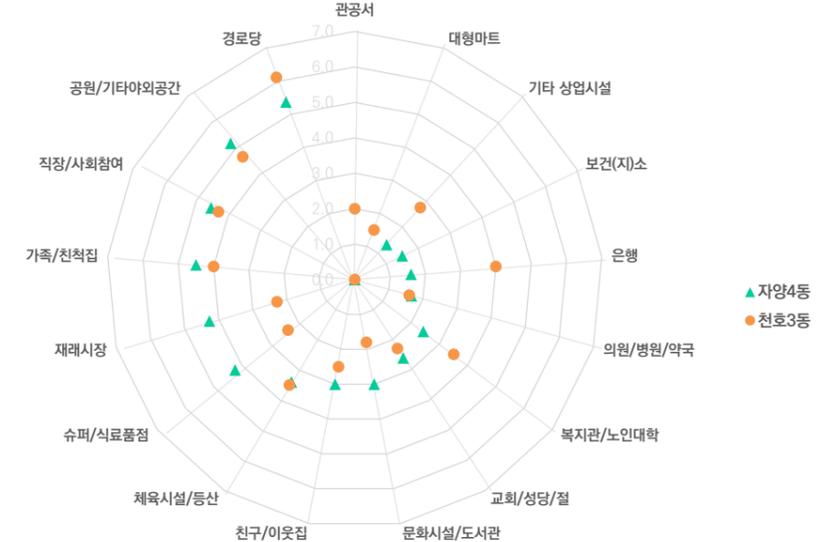
- 집을 중심으로 주요 근린시설의 이용 양상을 종합적으로 표현하는 개념도 작성
- 근린시설의 방문횟수, 체류시간, 이동거리를 분석해서 일상생활권의 시간적/공간적 범위 파악
- 자양4동과 천호3동을 각각 표현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

## 일상생활권을 어떻게 파악할까 : 근린시설 이용실태 조사

구분	사실	상호명	주소	방문목적	선택 이유	이용 만족도	주당 방문횟수	함께 한 사람	방문 시각	이동 수단	이동 소요시간	회당 체류시간
별레 (코드)	상세 코드	시설구분	상호명 기입 ※ 피면담자 집주소는 주1회 이상 방문하는 곳 모두 기입	주관식 : 다양한 행위 기술에장보기, 식사, 민원, 약국 중 이 약국을 선택한 이유는? 기 등	주관식 : 다른 많은 이유를 선택한 이유는? 기 등	: 10점 척도(1-10)		1) 혼자 2) 배우자 3) (손)자녀 4) 부모 5) 동년배친구/이웃 6) 동네 밖 친구 7) 서비스 제공자 8) 기타(직접 기입)	1) 새벽(0-6시) 2) 오전(7-12시) 3) 오후(1-6시) 4) 저녁(7-12시) 5) 필요에 따라	1) 도보 2) 버스 3) 자전거 4) 지하철 5) 택시 6) 승용차 7) 기타(콜택시 등)	: 분 단위 예) 7-8분, 35분	: 분 단위 예) 90분
집(A)	(B1) 경로당											
복지시설(B)	(B2) 노인교실/노인대학 (B3) 사회복지관(노인/종합)											
의료시설(C)	(C1) 약국 (C2) 의원(치과, 한의원 포함)											
교육시설(D)	(D1) 평생교육원 (E1) 문화시설(문화센터, 기원 등) (E2) 도서관(민간/공공)											
문화체육시설(E)	(E3) 공원 (E4) 체육시설(요가, 수영, 클라텍) (E5) 등산 (E6) 기타 야외공간(자투리공간) (F1) 관공서(구청, 동주민센터)	한강둔치		운동, 심심해서	아는 곳이 없어서	10	2-3	1	2 (10시)	3	10-15	210
공공시설(F)	(F2) 우체국 (F3) 파출소 (G1) 재래시장 (G2) 대형마트 (G3) 금융기관(은행, ATM 등) (G4) 슈퍼(신선식품/편의점)	노론산시장		구경, 정보기	가까워서	10	3-4	1, 2	2	1	10분 이내	60분 이내
상업시설(G)	(G5) 식당(음식점) (G6) 미용실/이용원 (G7) 옷가게	조양마트		손녀장난감구입	물품이 다양해서	10	6-7	1, 2, 3	2, 3	1	10분 이내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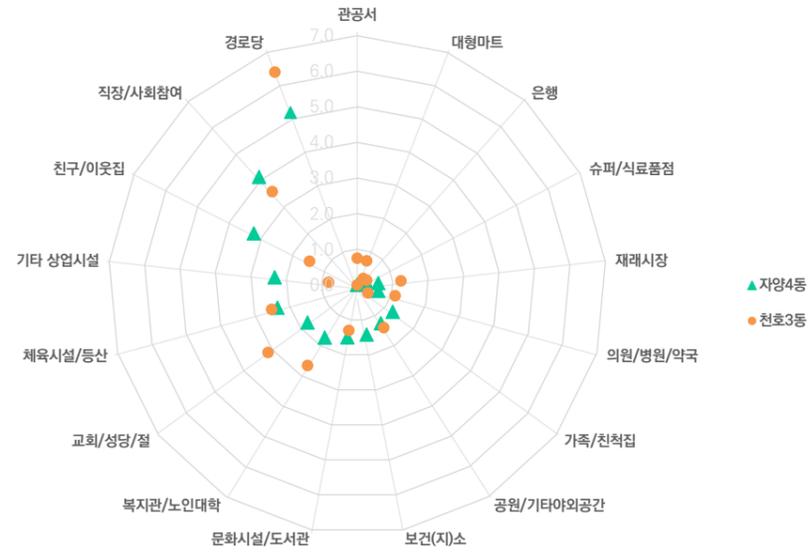
- 일상생활권은 노인들이 자주 방문하고, 오래 머무르는 곳들로 이뤄진 공간 범위
- 조사 대상 : 선행연구에서 찾아낸 노인들의 주요 생활시설(10개 영역-35개소)
- 조사 내용 : 주1회 이상 방문장소의 위치, 목적, 방문횟수, 체류시간, 이동시간 등

## 노인들이 자주 가는 곳은 : 주당 방문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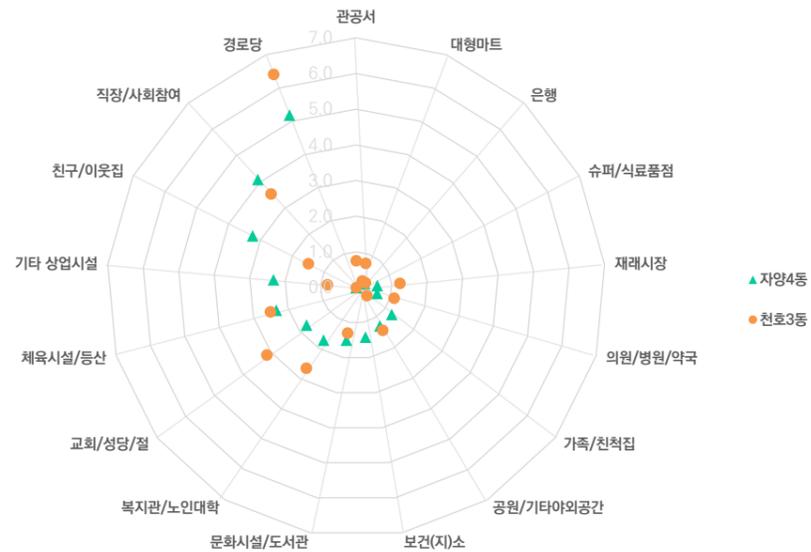
- 가장 자주 가는 곳은 경로당(자양4동 5.4회, 천호3동 6.1회)
- 주 4회 이상 가는 곳은 공원, 직장(사회참여), 가족/친척집
- 지역 공공시설 이용도 활발 : 자양4동(보건지소 1.5회, 동부여성발전센터 3.5회), 천호3동(강동사회복지관 4.1회)
- 자양4동은 노론산 재래시장과 슈퍼마켓, 천호3동은 은행을 주 4회 이상 방문

## 노인들이 오래 머무르는 곳은 : 회당 체류시간



- 가장 오래 머무르는 곳 : 경로당(자양4동 5.2시간, 천호3동 6.1시간)
- 2시간 이상 머무르는 곳 : 직장(사회참여), 체육시설/등산
- 자양4동은 친구/이웃집, 천호3동은 종교시설에 3시간에서 평균 3시간 이상을 보냄

## 노인들은 얼마나 멀리까지 가는가 : 이동 소요시간



- 10분 이내 : 경로당,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은행, 친구/이웃집
- 15분 이내 : 병원, 약국, 문화시설, 공원, 재래시장/대형마트
- 20분 이상 : 복지관, 체육시설(수영장, 등산), 종교시설, 직장

**750m, 행정동 규모와 유사**  
노인 평균 보행거리 47.9m/분 기준

## 4. 보행경로와 패턴 분석

### 노인의 동네보행

## 동네 보행을 어떻게 조사할까 : 통행일지와 맵핑

구분	출발장소 (7개의 상점명)	출발시간	도착장소	도착시간	소요시간	보행 목적	교통수단
		시 분(오전/오후)	주소명 (구체적 상점명)	시 분(오전/오후)	-	목적지 : (1) 길다 복식 : 알함, 화점백서 : 일과 가락역시 : 안가라	①도보 ②자전거 ③택시 ④승용차 ⑤기타
제1차	집	08시 20분(오전)	한정마트	08시 30분(오전)	10분	일과 가락역시	①도보
1	집	4시 40분(오후)	건대	4시 55분(오후)	15분	운동	도보
2	건대	5시 5분(오후)	집	5시 20분(오후)	15분	키가	도보
3	집	7시 20분(오후)	성남(대)	7시 30분(오후)	10분	운동	//
4	수영장	8시 30분(오후)	집	8시 40분(오후)	10분	키가	//
5	집	8시 40분(오후)	팔 집	8시 43분(오후)	3분	점심·세탁	//
6	팔 집	9시 20분(오후)	집	9시 23분(오후)	3분	키가	//
7	집	9시 20분(오후)	자관유역	9시 43분(오후)	13분	탁자운동	도보
8	자관유역	9시 45분(오후)	집	10시 0분(오후)	15분	신발입기	//
9	집	11시 0분(오후)	가이슈에	11시 5분(오후)	5분	모임 참석	//
10	취약예	2시 0분(오후)	집	2시 5분(오후)	5분	점심·수면	//
11	집	5시 27분(오후)	조양리도	5시 30분(오후)	3분	탁자하운	//
12	조양리도	5시 30분(오후)	집	5시 33분(오후)	3분	키가	//
13	집	7시 30분(오후)	라양동소계	7시 45분(오후)	15분	모임 참석	//
14	라양동소계	8시 30분(오후)	집	8시 45분(오후)	15분	키가	//
15	시 분(오후)		시 분(오후)				



- 노인의 동네보행은 몇 개의 규칙적인 패턴에 따라 이뤄져
- 통행일지 작성 : 일상생활에 대한 심층 인터뷰로 패턴화된 방문장소, 목적, 시간, 이동수단 등을 기록
- 이동경로 맵핑 : 통행일지에 적힌 장소로 이동할 때 이용한 길을 표시

## 동네 보행을 어떻게 조사할까 : GPS를 이용한 검증과 데이터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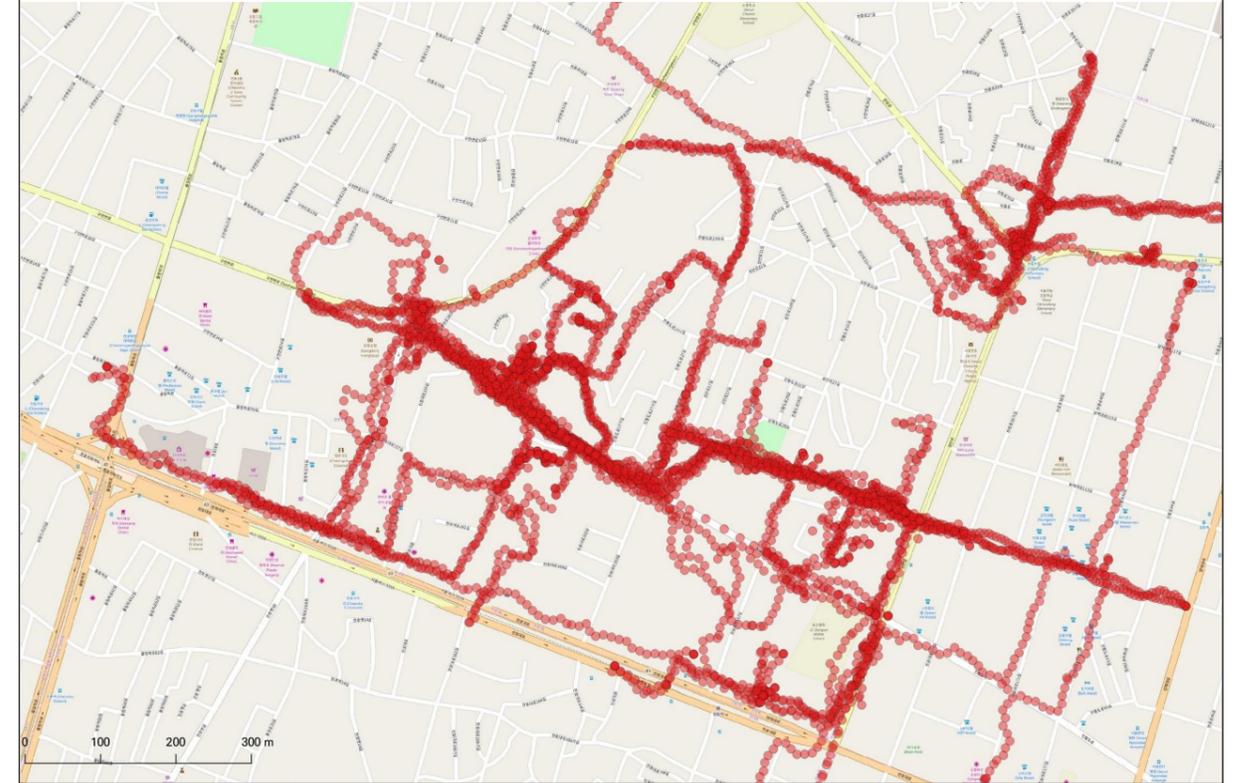


램블러(모바일앱/측정용)

램블러(웹/분석용)

- 맵핑 결과 검증 : 조사원이 직접 걸어보면서 통행일지와 맵핑 결과를 확인
- GPS앱을 이용해서 보행경로, 방문시설 사진, 총 보행거리 등을 데이터로 기록
- 개인별로 기록한 보행경로를 행정동별, 다양한 하위집단별로 합산해서 패턴을 추출

## 행정동별 보행패턴 : 천호3동(29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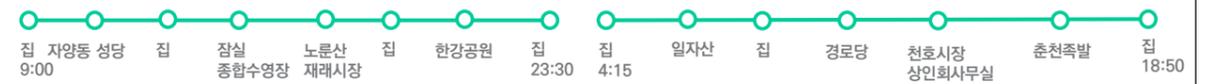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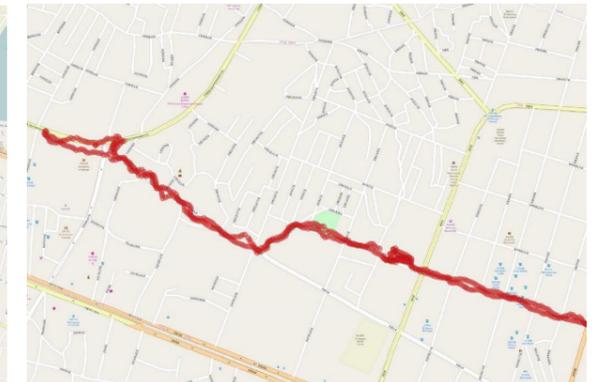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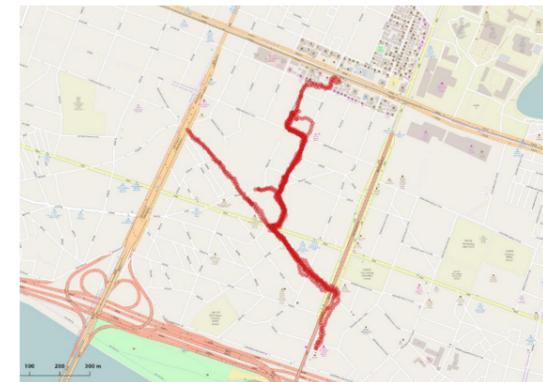
## 행정동별 보행패턴 : 자양4동(29명)



## 사례별 보행패턴 : 활기찬 노인

자양4동  
오○○씨 : 7.1+a km  
(여성/68세/ 소득 150~200만원)

천호3동  
정○○씨 : 3.2+a km  
(남성/78세/ 소득 50만원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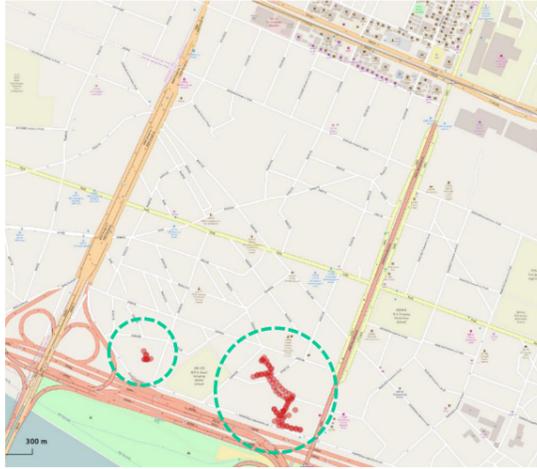


## 사례별 보행패턴 : 활기차지 않은 노인

자양4동

이OO씨 : 0.5 k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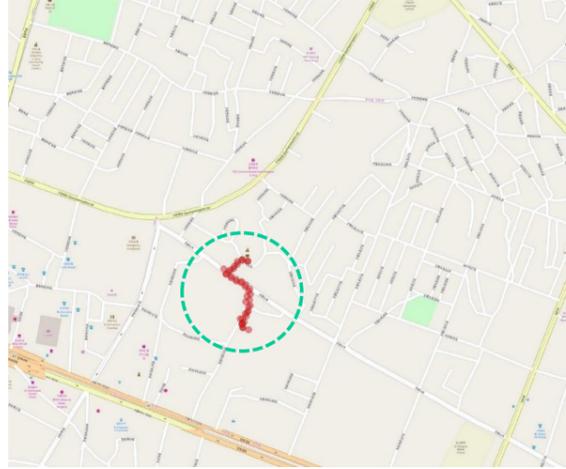
(여성/76세/생활비 50만원 이하)



천호3동

강OO씨 : 0.4+a km

(여성/75/소득 50만원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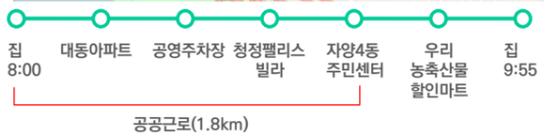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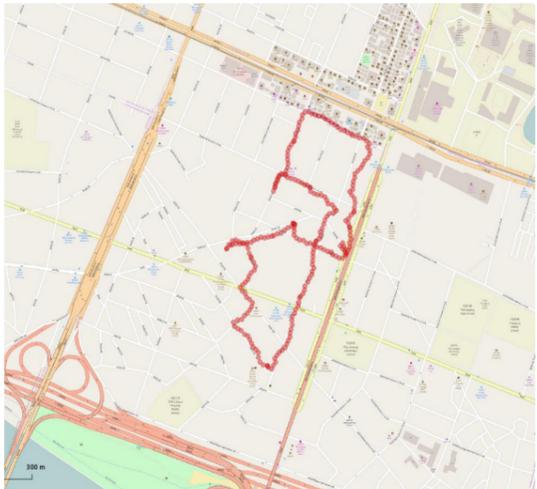


## 사례별 보행패턴 : 가난한 노인

자양4동

장OO씨 : 2.5 k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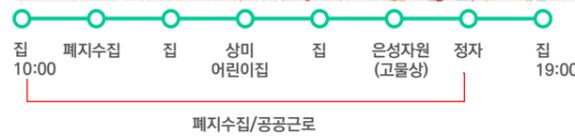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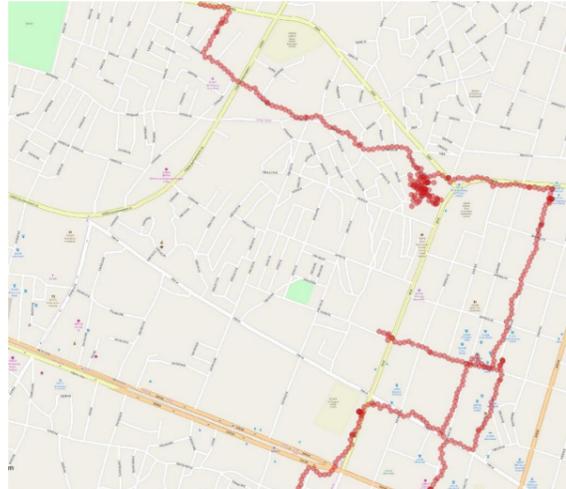
(여성/75세/소득 50~100만원)



천호3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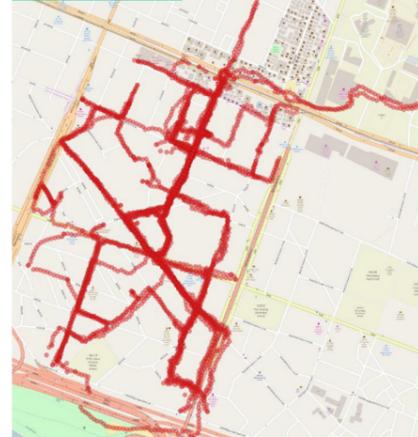
민OO씨 : 1.9+a km

(여성/76세/소득 50~10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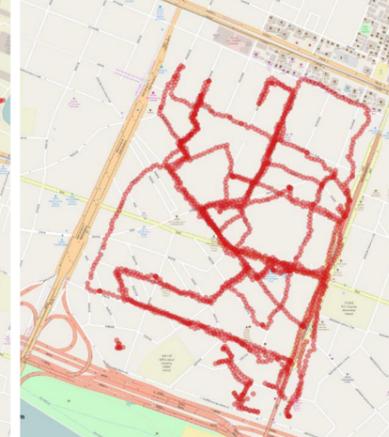


## 집단별 보행패턴 : 연령대

자양4동 60대



자양4동 70대



자양4동 80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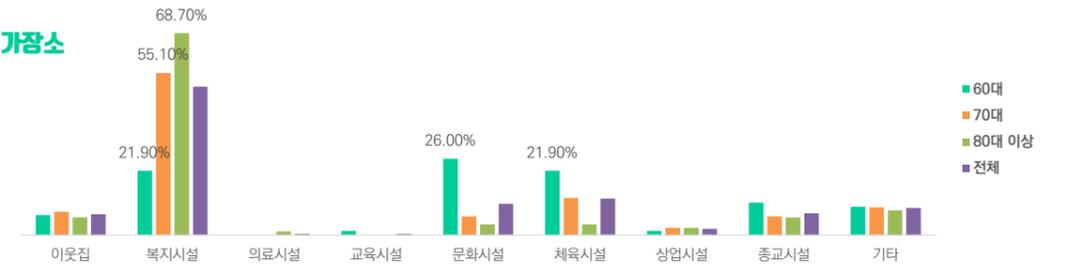
### 연령대가 높을수록

- 평균 보행거리가 짧아짐 : 3.58km → 1.85km
- 보행범위가 동네 안으로 좁아짐
- 공공시설 이용은 줄고 경로당 이용은 늘어남

구분	인원 수	평균거리(km)	평균 연령
60대	13	3.58	66.7세
70대	8	2.02	74.6세
80대	8	1.85	83.1세

## 연령대별 여가장소와 선택이유

### I 여가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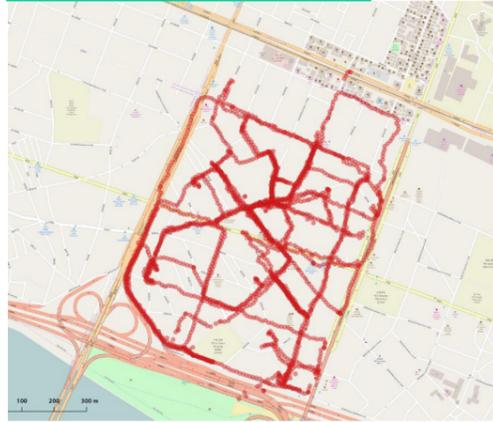
### II 선택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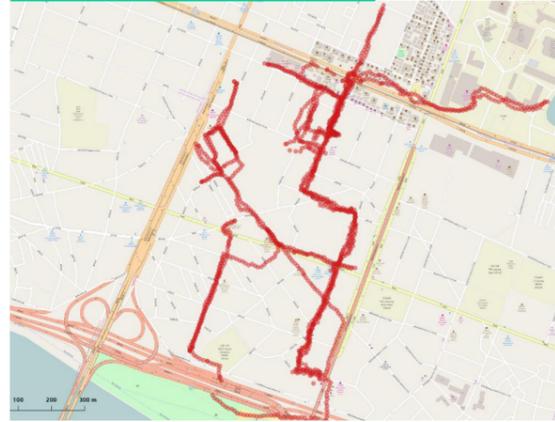
- 여가장소 : 60대는 문화/체육시설을, 7~80대는 경로당과 복지관을 많이 이용
- 선택이유 : 60대는 건강 유지, 7~80대는 갈 곳이 없어서, 연령대가 높을수록 관계 중심
- 보행패턴과 일치 : 60대는 동네 밖 좋은 문화/체육시설을, 7~80대는 친구가 많은 동네 안 경로당과 복지관을 이용

## 집단별 보행패턴 : 경제수준(가구생활비)

자양4동 가구생활비 100만 원 이하



자양4동 가구생활비 300만 원 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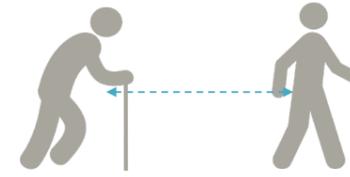


### 경제적으로 윤택할수록

- 평균 보행거리가 늘어남 : 2.18km → 3.26km
- 보행범위가 동네 밖으로 넓어짐
- 문화여가시설 이용은 늘고 경로당 이용은 줄어듦
- 동네 밖 여가목적 보행이 많음

구분	인원 수	평균거리(km)
100만원 이하	12	2.18
300만원 초과	5	3.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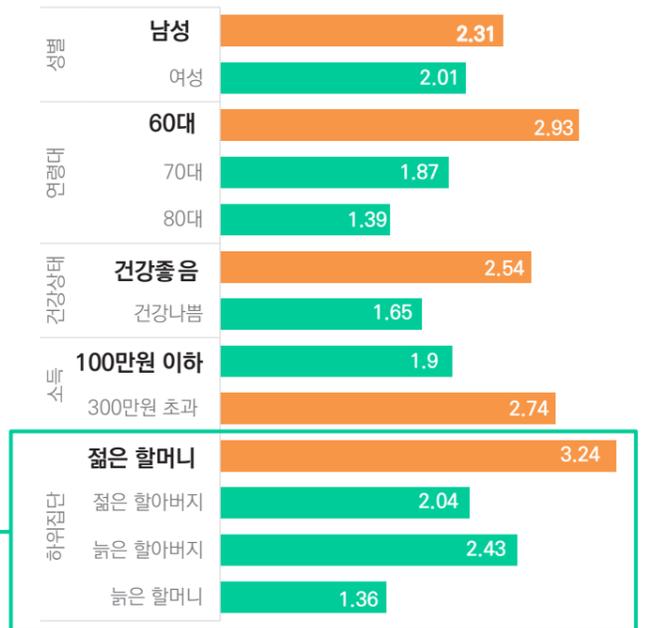
## 집단별 평균 보행거리



### 같은 노인이더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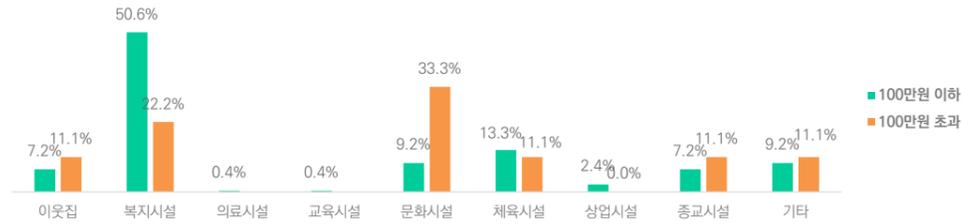
연령, 건강상태, 소득에 따라 평균 보행거리가 다름  
특히, 성별과 연령 하위집단 차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자양4동+천호3동 노인 집단별 평균보행거리 (단위: km)



## 가구생활비에 따른 여가장소와 선택이유

### I 여가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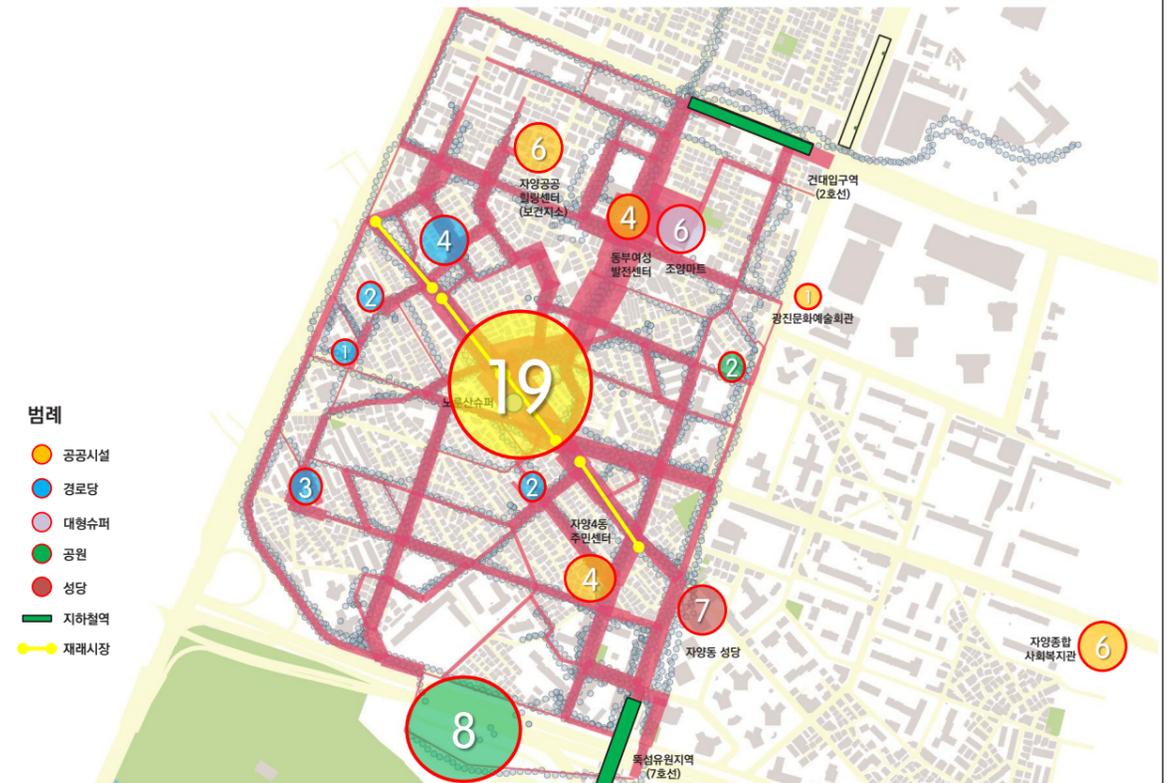


### II 선택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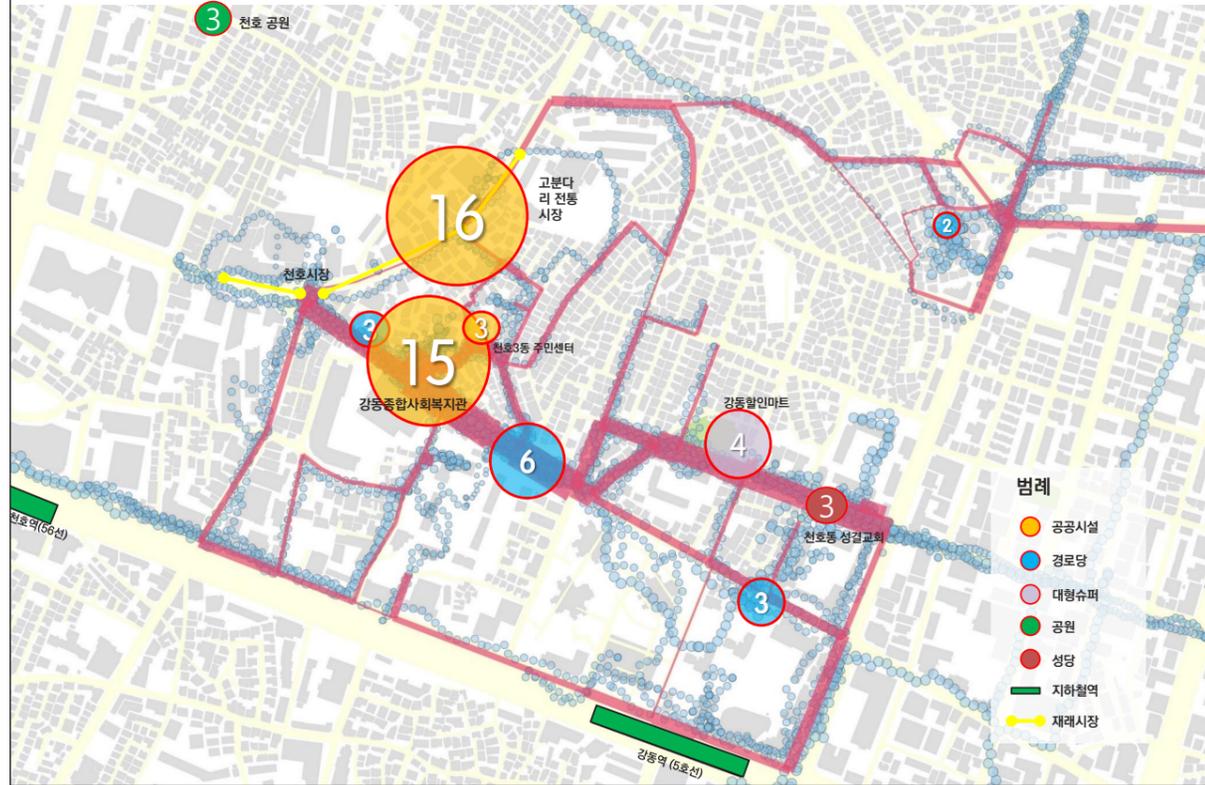


- 여가장소 : 저소득층은 복지시설(경로당)을, 고소득층은 문화시설을 많이 이용
- 선택이유 : 저소득층은 친한 사람이 있어서, 고소득층은 건강 유지를 위해
- 보행패턴과 일치 : 저소득층은 동네 안 경로당 방문과 근로목적 보행이, 고소득층은 동네 밖 문화여가 보행이 많음

## 노인들의 핫플레이스와 동네보행 : 자양4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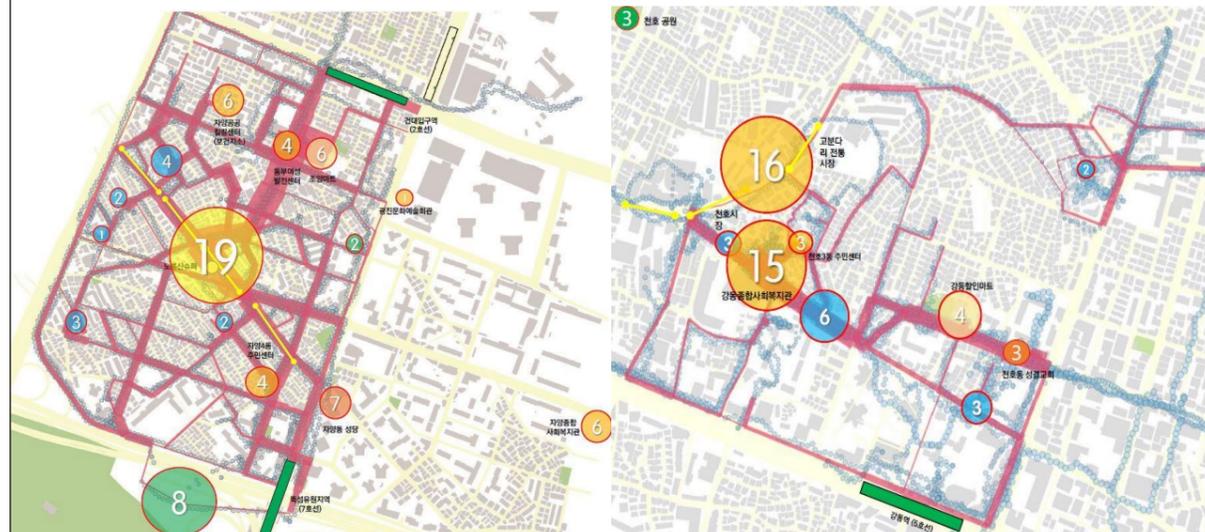
## 노인들의 핫플레이스와 동네보행 : 천호3동



### 5. 생활실태와 욕구

## 노인이 사는 동네, 살고 싶은 동네

### 소결: 노인들의 일상생활권과 동네보행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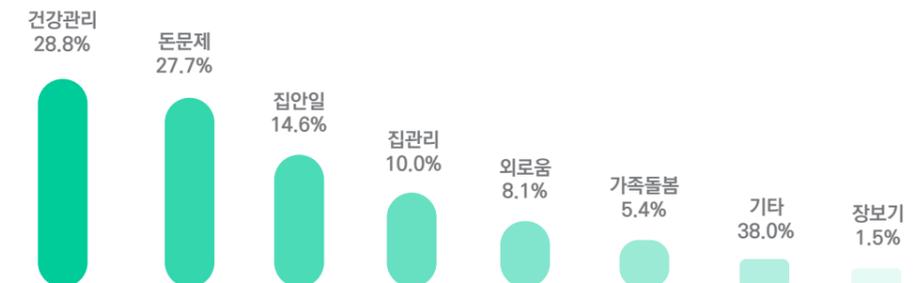
- 걸어서 15분 거리 안에서(행정동 규모) 대부분의 필수적, 사회적 활동을 하고 있음
- 노인들의 핫플레이스는 경로당과 재래시장이며, 공공시설인 복지관, 보건지도도 활발하게 이용함
- 넓은 길보다는 시설이 밀집한 길, 차없는 길, 오래된 길을 선호함
- 평지인 자양4동의 보행거리가 더 길지만, 이보다는 나이, 소득, 성별에 따른 보행 거리, 범위, 장소 차이가 더 큼

### 설문 참여자 기본정보

#### I 개인과 가구(N=286)



#### I 생활상 가장 어려운 일(N=260)



## 앞으로 어디서 누구와 살고 싶은가

### I 어디서

**79.2%**  
현재 살고 있는 집/동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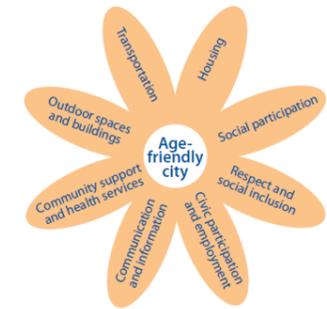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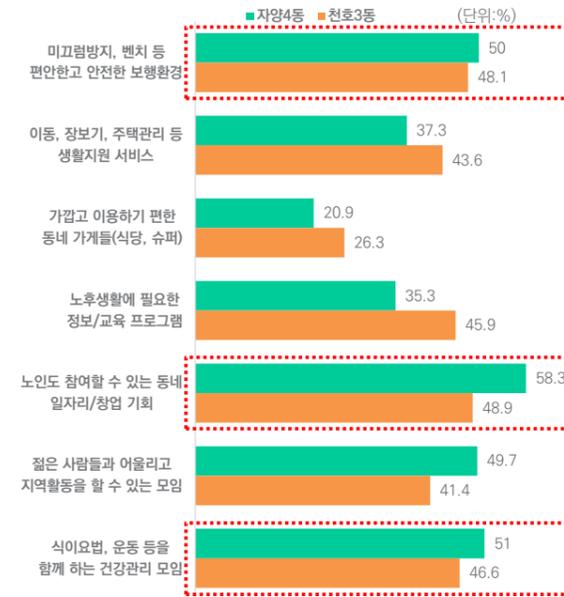
자양4동 83.0%, 천호3동 74.8%  
※ 2014년 노인실태조사 74.2%

### II 누구와(중복응답)



- 현재 살고 있는 동네에서 늙어가고 싶은 분들이 대부분
- 혼자, 배우자 등 1~2인 가구 희망자가 많은데, 대부분 현재 가구 구성을 유지하고 싶은 것
- Aging in Community를 위해서는 노인 1~2인 가구의 생활을 보완하는 이웃관계가 중요

## 앞으로도 이 동네에서 계속 살기 위해 더 필요한 것은



국제보건기구(WHO) 고령친화도시 8대 영역

### 필요한 정보 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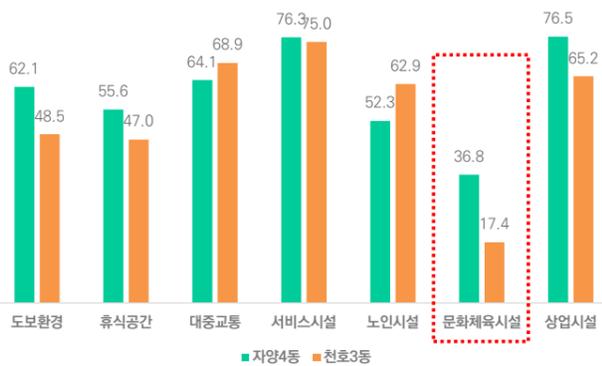


- 자양4동, 천호3동 모두 일자리, 주민 건강관리 모임, 안전한 보행환경 수요가 높아
- 필요한 생활정보도 건강, 경제적 지원, 일자리 순으로 높아 개선 요구와 일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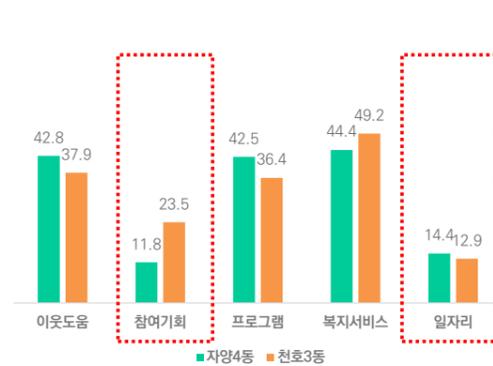
## 현재 살고 있는 동네는 만족스러운가

전반적인 만족도 : 긍정 응답이 67.7%

### I 물리적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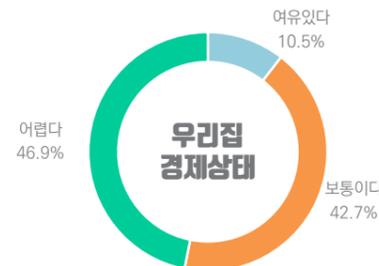


### II 사회적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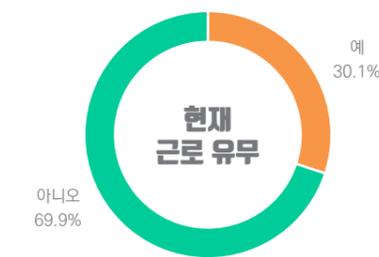
- 전체 만족도가 높은 편, 연령대가 높거나 여성일수록 만족도가 더 높아
- 물리적 환경 : 문화/체육시설 외에 모두 높은 편, 행정동 특유의 부족한 부분에 불만족
- 사회적 환경 : 지역활동 참여 기회, 노인 일자리 부족이 두드러져

## 현재 경제 상태와 근로 실태는



일하는 이유  
**생계비 마련 70.9%**

용돈 마련	14.0%
건강 유지를 위해	4.7%
시간을 보내기위해	3.5%
사회적기여	3.5%
기타	3.5%



일하지 않는 이유  
**몸이 아파서 4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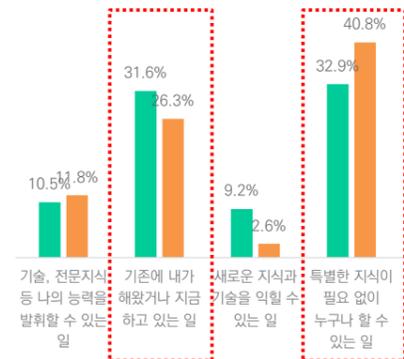
노인이 할만한 일자리가 없어서	30.6%
여가를 누리며 살고 싶어서	5.7%
시간이 없어서(가사, 손자녀 돌봄 등)	5.2%
기타	4.1%
특별한 기술/재주가 없어서	3.6%
편히 쉬고 싶어서	1.6%

- 현재 경제적 이유(생계비, 용돈)로 일하는 경우가 매우 높아(자양4동 92%, 천호3동 75%)
- 건강 유지, 사회적 기여를 위해 일하는 경우는 10% 미만
- 일하지 않는 이유는 몸이 아프거나 적절한 일자리가 없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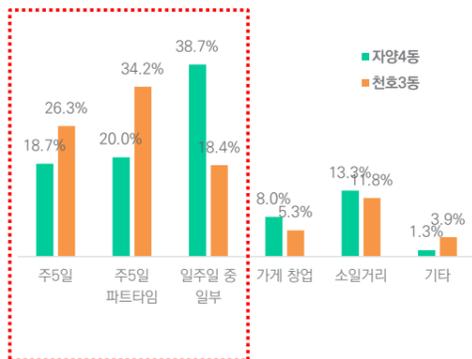
## 앞으로 희망하는 근로 형태와 수준은

앞으로도 일하고 싶다 : 53.5%

### I 희망하는 일의 성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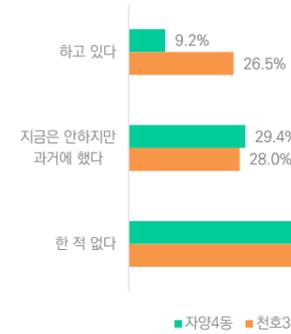
### II 희망하는 근무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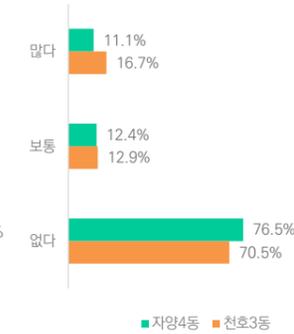
- 절반 이상(53.5%)의 노인이 앞으로도 일하기를 원해
- 일의 성격 : 누구나 할 수 있거나 과거 해봤던 일로 업무 부담이 높지 않은 종류를 선호
- 근무 형태 : 소일거리, 창업보다는 파트타임 이상의 상근직을 훨씬 선호

## 앞으로 희망하는 사회적 관계 변화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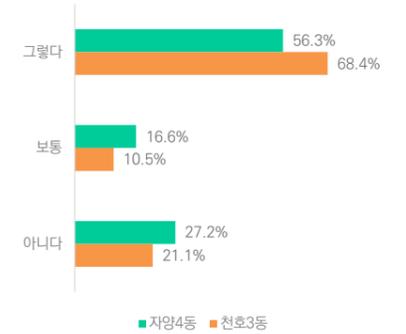
재능기부나 자원봉사 활동을 해보셨나요?



동네 이슈에 의견을 내거나 직접 해결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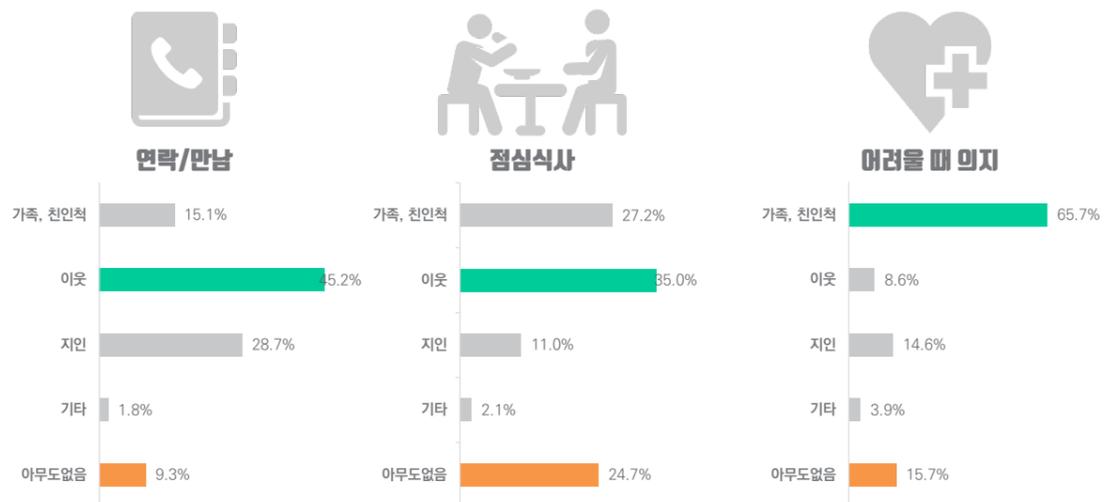
우리 동네가 변화하는데 참여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 자원봉사에 비해 지역문제 해결 참여 경험이 매우 낮음
- 고령친화적인 지역사회 개선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는 매우 높음
- 천호3동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복지관과 찾동 마을계획 활동 때문인 것으로 보임
- 마을계획은 노인들이 고령친화 지역사회 개선에 적극 참여하는 현실가능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현재 사회적 관계의 범위와 수준은

I 다음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은?



- 모든 사회적 관계에서 혈연과 지연(가족, 친척, 지인)이 가장 많음
- 이웃은 연락/만남, 점심식사는 활발하게 하지만, 어려울 때 의지하기는 힘들
- 모든 사회적 관계에서 고립된 노인 비율이 10% 이상으로 높음

## 6. 결론

# 서울노인의 동네생활이 행복하려면?

# 결론

## 노인의 일상생활권으로서 행정동에 주목

- 일상생활권 조사 결과, 서울시 고령친화 지역사회 전략의 공간적 범위를 행정동으로 설정 가능
- 그 안에서 시설과 서비스 유형에 따라 10분 권역과 15분 권역을 나눠서 접근
- 보행환경 개선도 현재 노인들이 많이 걷는 경로의 질을 높이는 방향이 효과적
- 실제 핫플레이스와 같은 이 연구의 방법에 따라 행정동별로 찾아내는 것이 바람직

## 물리적 환경보다는 일자리, 이웃관계 등 사회적 환경 개선이 시급

- 보행환경, 생활 및 노인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예상보다 높은 편
- 반면 일자리, 주민 건강모임, 사회적 관계 등에서 노인들의 요구와 개선점이 많은 것을 확인
- 일자리 : 용돈 이상을 벌 수 있는 특별히 어렵지 않은 일을 커뮤니티 비즈니스 방식으로 개발
- 건강모임 : 식생활, 운동, 복약, 치료 등 일상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자조모임 활성화 필요
- 사회적 관계 : 지역 커뮤니티가 노인 1~2인 가구의 사회적 지지를 담당하는 데까지 발전해야

# 감사합니다

### 조사원

소준철, 이민재, 문진영, 백가현

### 면담조사원

권혜영, 김정욱, 백예진, 신보경, 오혜인, 윤희정, 이소현, 천혜리

### 설문조사원

강규중, 김범수, 김민규, 김영미, 리위, 민진홍, 박소정, 이하림, 이학건, 전채훈, 최우현

### 사진출처

- 4p. 첫번째 사진: 노동OK, 2017.02.06
- 4p. 두번째 사진: 잘못사 블로그, 2017.02.07
- 4p. 세번째 사진: 서울대학교기독교동문회 시사논평, 2017.03.02
- 4p. 네번째 사진: JTBC, 2016.01.22
- 4p. 다섯번째 사진: 에너지경제, 2017.09.25
- 4p. 여섯번째 사진: 중앙일보, 2008.09.05
- 11p. 폭염 사진: KBS, 2013.06.20
- 12p. 자양4동주민센터: 자양4동 홈페이지
- 12p. 광진주민연대: 직접 촬영
- 12p. 자양공공힐링센터: 시정일보, 2017.07.05
- 12p. 동부여성발전센터: 서울특별시동부여성발전센터 홈페이지
- 12p. 자양3동 경로당: 직접 촬영
- 12p. 천호3동 주민센터: 직접 촬영
- 12p. 강동종합사회복지관: 강동종합사회복지관 트위터

# 결론

## 성별, 나이, 소득 등에 따른 세분화된 접근과 지원 필요

- 하위집단별로 보행 양태와 지역사회 개선 욕구에 꽤 큰 차이가 있어
- 각 집단의 어려움, 요구, 잠재력에 따른 세분화된 지원과 역할 부여가 필요
- 젊은 할머니 : 고령친화 지역사회 전략의 핵심 주체
- 할아버지 : 동네 밖 활동 선호, 동네 안 이용시설이 단조롭고 사회적 관계도 가장 취약(지역사회 안착이 과제)
- 늙은 할머니 : 지역사회 전략과 함께 사회복지적 접근이 필요

### 젊은 할머니

- 소득은 높고, 건강상태는 보통
- 가장 많이 걸음
- 문화/체육시설 이용률 높음
- 여가장소 선택 이유는 '건강유지'
- 사회적 환경에 대한 욕구 높음

### 젊은 할아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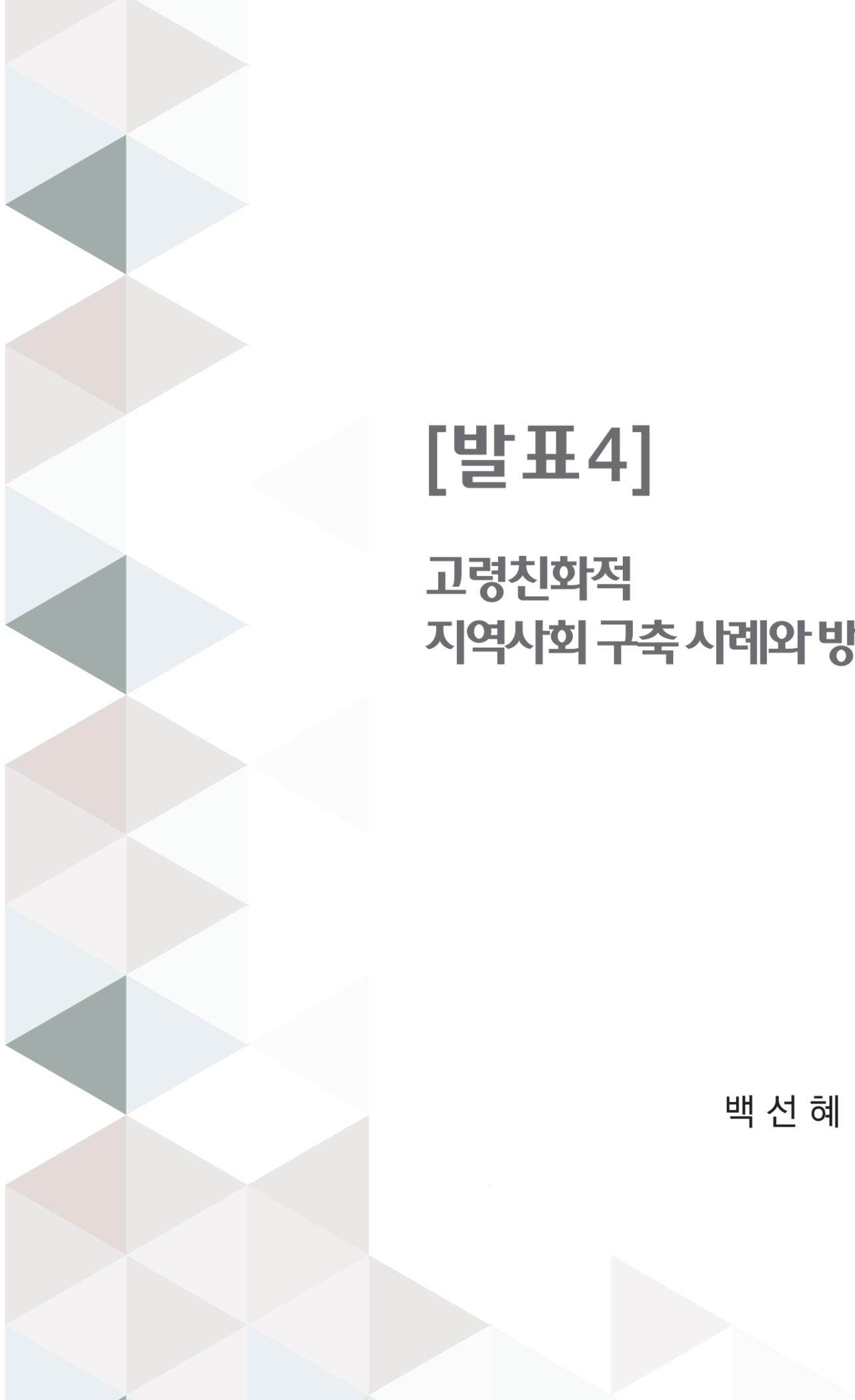
- 소득과 건강상태 보통
- 많이 걷는 편임
- 공원을 자주 이용하지만, 그 외에 달리 갈 곳이 없음

### 늙은 할아버지

- 소득이 낮음
- 적게 걷고, 주로 복지시설 이용
- 여가장소는 친한 사람 때문에 선택하고, 그 외 달리 갈 곳이 없음
- 물리적 환경에 대한 욕구 높음

### 늙은 할머니

- 소득이 낮고 건강상태 나쁨
- 적게 걷고 주로 복지시설 이용
- 여가장소는 친한 사람 때문에 선택하고, 그 외 달리 갈 곳이 없음
- 변화의지가 가장 낮은 집단



## [발표 4]

고령친화적  
지역사회 구축 사례와 방향

백 선 혜

## 고령친화적 지역사회 구축 사례와 방향

2017.10.13.  
백선희 연구위원



### 0. 사례개요

구분	사례
물리적 환경 개선	공간·시설 1. 스웨덴 스톡홀름의 만남의 장소 2. 노인놀이터 및 노인친화형 공원 3. 노인친화적 상점_독일EDEKA 50플러스 슈퍼마켓
	교통 3. 택시 바우처, 노인 전용버스(미국 부르클린) 자원봉사자를 통한 이동지원, 고령운전자들을 위한 안내서
	주거 4. 장수마을 5. 금천구 보린주택
생활서비스 제공 모델	1. 비컨힐 빌리지 2. 영국 서클 모델 3. NORC-SSP 모델 4. 광진구 돌봄클러스터
커뮤니티 비즈니스	1. 마을기업 키득키득 2. 민들레워커 협동조합 3. 우리동네 아이돌봄 기동대
지역사회 참여 소통	1. 일본 옷카이치시 고립화방지 거점 공간 2. 광주 광산구 더불어 락 3. 경북 칠곡군 늘배움학교
지역단위 계획수립	1. 일본 도요시키다이 프로젝트(지역사회케어모델) 2. 미국 뉴욕시 고령친화도시 프로젝트

## 1. 물리적 환경개선

공간·시설    교통    주거

### 사례1\_스웨덴 스톡홀름 만남의 장소

- 현황
  - 만남의 장소는 스웨덴 「사회서비스법」에 근거하여 스톡홀름 지역의 65세 이상 노인들의 신체적·심리적 건강 유지를 위해 설립된 물리적인 공간
  - 스톡홀름 내에 45개의 만남의 장소가 있고, 스톡홀름 홈페이지에 만남의 장소 위치와 연락처, 활동내용, 일정 등에 대한 정보제공
- 기존 시설과 차이점
  - 주간보호센터와 달리 별도의 자격요건이나 신청, 비용 없이 65세 이상의 모든지역 노인에게 개방된 공간
  - 경로당과 달리 직원이 상주하면서 만남의 장소를 운영하고 활동을 조직, 제공함(스파르네지역 지점: 정규직원2명, 시간제직원 1명)
  - 방문형 서비스 제공: 직원에는 fixer 직원이 포함되어 있어 집을 방문해 노인들이 하기 힘든 커피 달기, 지붕 개조 등의 작업을 도움
- 주요 프로그램
  - 지역마다 프로그램의 차이가 있으나 식사를 제공하고(유료), 신체활동 및 다양한 취미 여가활동 프로그램, 상담 등의 프로그램 진행
  - 예) 헤셀뷔와 빌링뷔 지역의 'GreenHouse': 춤, 노래, 에어로빅, 필라테스, 영화, 빙고, 다과, 친구들과의 만남, 돌봄제공자 상담 등

자료: 스웨덴 스톡홀름시 홈페이지(http://www.stockholm.se/) Skarpnack 지역의 만남의 장소 담당자 이메일 문의



## 1. 물리적 환경개선

공간·시설    교통    주거

### 사례2\_노인놀이터 및 노인친화형 공원

- 성북구 '어르신 건강마당'
  - 상월곡동 청량근린공원에 조성된120㎡규모의 노인전용 공원으로 건강도시 성북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조성
  - 노인에게 신체활동량 증가 및 근력향상 등 건강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조성한 공원으로 노인의 신체활동을 고려한 시설 배치
  - 운동재활기구, 걷기용 트랙, 근력강화 및 균형감각 운동기구, 지압기능이 있는 안전 손잡이, 무릎보호를 위한 고무칩 보도 설치
- 강동구 '쌈지놀이터'
  - 2016년 6월 쌈지놀이터 '어르신 열린 프로그램 신설'. 강동구 내 3개 동에서 운영(천호3동, 천호1동, 성내2동)
  - 정자, 등반이 의자 등 시설물 설치
  - 관내 기업인 한국마사회 후원을 통해 파고라, 의자 등 시설 개선, 사회복지공동모금 후원을 통해 프로그램 개발·지원
  - 활동내용: 보건소, 복지관, 관내 기업 등과 연계해 건강심리상담, 전통놀이 체험, 음악연주 운동동아리 등 여가프로그램 운영



## 1. 물리적 환경개선

공간·시설    교통    주거

### 사례3\_독일 시니어대상 슈퍼마켓 '아텍 아티브 마켓 50플러스'

- 개념: 기존 마켓에서 시니어 고객을 위해 고령친화적 시설 및 환경을 구비한 슈퍼마켓
- 판매품: 50세 이상 고객을 위한 소형포장상품, 애완동물코너 등 판매
- 고령친화적 환경 사례
  - 선반높이와 계산대를 다른 매장보다 낮게 설치하고 매장 통로를 넓힘
  - 미끄럽지 않고 눈부심이 적도록 광택을 줄인 매장 바닥, 혈압계 등을 갖춘 휴식코너
  - 상품진열대에 돋보기를 부착해 제품설명서를 확대해 볼 수 있게 함
  - 50세 이상 고객확보를 위해 근처 은퇴자 아파트와 보호시설로 무료 셔틀버스 운행
  - 다른 매장에 비해 직원 수가 약간 많은 편이며, 모두 응급치료 교육을 받음



## 1. 물리적 환경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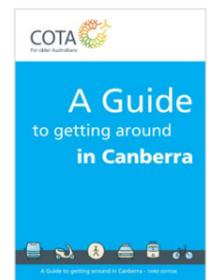
공간·시설    교통    주거

### 사례4. 고령친화적 교통시설 및 정보제공 사례

- 노인을 위한 택시바우처

구분	주요내용
영국	· 장애인과 노인에게 대한 측정기준을 통과한 경우 택시비를 보조 받을 수 있는 카드 발급 · 이용자가 기본료 2.5파운드를 부담 해야 하며, 8.3파운드까지 지원. 추가비용은 이용자가 지불
미국 LA	· LA특별교통서비스는 LA교통국에서 선정한 자격취득심의기관을 통해 자격을 취득한 장애인과 노인을 대상으로 운영 · 분기별 72파운드 쿠폰, 한도 12달러
미국 뉴욕	· 뉴욕시 노인국에서는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으로 "Taxi Smart Card Program"을 운영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뉴욕 일부지역에서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 대상으로 운영1 · 100달러가 선입금된 카드로 택시를 이용(12.5달러 자부담, 87.5달러 보조)

- 노인복지시설 및 의료 시설 운행 버스\_미국 브록클린 "Brookline Elderbus"
  - 이 버스는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부록클린 노인센터, 요양시설, 쇼핑지역, 룡우드지역의 병원 등을 거치는 노선 운행
  - 매 시간 운행, 이용 요금은 50센트
- 자원봉사를 통한 이동지원 서비스
  - 미국 ITNAmerica는 전국적으로 제휴를 맺고 자원봉사자와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연계하는 서비스 제공
- 고령운전자에 위한 안내서(호주)
  - 고령자의 노상 안전과 관련하여 별도의 웹사이트를 운영(Information for Older Road Users)
  - 고령운전자 핸드북 보급. 운전자, 보행자, 스쿠터, 모터바이크, 자전거, 대중교통 이용 등 다양한 상황에서 노인이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유용한 정보 제공



## 1. 물리적 환경개선

공간·시설    교통    **주거**

### 사례5. 주민참여형 환경개선\_장수마을

- 현황
  - 한양도성에 인접한 성북구 장수마을은 약 300세대가 살고 있으며, 60세 이상 거주비율이 65%인 초고령마을
  - 거주기간이 평균 23년으로 전체주민의 53%가 20년 이상 장기거주자. 자발적으로 이웃들끼리 서로 돌봐주는 관계망이 형성
  - 2008년부터 대안개발연구모임이 결성되면서 주민들과 함께 대안을 만들면서 보존형 주거환경관리사업(2013년)을 진행
- 환경개선 및 주민활동 내용
  - 도시가스 설치, 하수관 정비, CCTV설치, 골목길 정비, 주택개보수 지원, 장수마을박물관, 주민사랑방 조성 등
  - 공모사업을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요가, 인형만들기, 한지등 만들기, 마을축제 등) → 커뮤니티 비즈니스 모델 고민 중
- 주민참여를 통한 환경개선
  - 마을기업 동네목수 설립을 통한 환경개선: 주민공동시설 개선, 빈집 리모델링, 집수리, 가구제작 등(현재 동네목수 폐업)
  - 주민 통신원을 선출 및 주민워크숍 진행을 통해 의견수렴. 최근 교통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마을버스 도입에 대한 주민 워크숍 진행
- 지속가능 마을모델을 만들기 위한 중간운영 인력 필요
  - 외부에서 들어오는 젊은 예술가층에게 저렴한 임대하여 마을에 거주할 수 있는 방식을 통해 매개인력 보충에 대한 고민 중



## 1. 물리적 환경개선

공간·시설    교통    **주거**

### 사례6. 홀몸어르신을 위한 금천구 보린주택

- 사업개요
  - 홀몸어르신들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금천구, SH공사, 한국사회복지사와 협업하여 홀몸어르신 맞춤형 주택 개발
  - 입주자격: 금천구 지하-반지하에 거주하는 65살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인 홀몸어르신
  - 계약기간: 2년(입주자격 유지 시 최대 9회 연장, 최대 20년까지 거주 가능)
  - 임대료: 월평균 11원(주변시세의 30%)
  - 관리: 지역자활센터 '해피하우스 사업단' 위탁(경미한 하자보수와 관리), SH공사
  - 총 4호 점 개설(보린주택, 보린두레, 보린햇살, 보린함께)
- 시설현황
  - 엘리베이터와 빌트인 세탁기, 화장실 외 1층 커뮤니티 공간과 옥상 텃밭 조성. 공공요금 절감에 도움을 주는 태양광설비
  - 일부 주택은 주차장 일부를 인근 주민에게 유료 개방하여 발생한 수익금으로 주택관리비 충당
  - 사랑방 역할을 하는 '어울림 방' 조성
  - 입주 어르신 대상으로 무료로 치매예방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자원봉사단체가 매월 1회씩 운영)



## 1. 물리적 환경개선

### 시사점

#### 1 주거·교통·공원·시설 등 물리적 환경개선

- 신체활동이 떨어지는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환경 정비
- 자연스럽게 신체활동 및 사회활동 증진 유도
- 재생계획 수립과정에서 노인의 주체적 참여 유도
  - 노인의 요구와 필요에 대응하는 세심한 접근들이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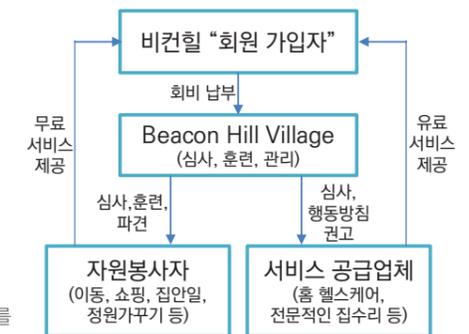
#### 2 생활편의, 건강증진, 여가활동 등에 초점

- 노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세대를 위한 통합적 필요
  - 유럽 놀이터: 노인과 어린이가 함께 이용하는 공간
  - 장수마을 예술가가 지역재생에서 역할
- 노인을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활동적인 생활 주체'로 인식 전환 필요
  - 장수마을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대한 고민

## 2. 생활 서비스 제공 모델

### 사례1. 빌리지 모델\_미국 보스톤 비컨힐 빌리지

- 형성배경 및 개요
  - 1999년 하버드대 동창생을 주축으로 창립멤버 12명에 의해 출범(하버드대 경영대원의 조언을 받은 혁신 노후 모델)
  - 오랫동안 거주해온 자신의 집에서 계속 살기를 희망하는 미국 초기 베이붐 세대들이 자발적으로 조성한 '회원제 서비스'
  - 2006년 이후 빌리지가 미국 전역으로 확대. 현재는 Village to Village Network에서 '빌리지' 공동체 설립과 관리를 돕고 있음
- 운영
  - 비영리단체로 유급직원과 자원봉사자(100명), 서비스 제공업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비와 후원금으로 운영
  - 회원제(50세 이상) 운영, 회원 400명, 연회비: 가구 \$ 975, 개인 \$675, 저소득층 별도 보조
- 서비스 내용
  - 원스톱 쇼핑: 전화 한 통이면 회원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 받음
    - 1) 프로그램: 문화예술, 문학과 학습, 사교행사, 여행
    - 2) 서비스: 집안일, 외출도움, 활동적인 상태 및 건강
    - 3) 회원할인: 10% 이상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공급업체의 서비스 제공
- 성과 및 한계점
  - 노년기의 고립예방 및 시설입소를 늦추거나 예방하는 효과
  - 사회적 활동을 통한 빌리지 구성원간의 공동체 의식 고양
  - 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55% 나머지는 부유한 회원들의 기부금이나 후원행사를 통해 충당. 부자동네가 아니면 도입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2. 생활 서비스 제공 모델

### 사례2. 영국 씨클 모델\_HMR 서클(Heywood Middleton & Rochdale Circle)

- 형성배경
  - 정부가 제공하는 돌봄서비스와 서비스 이용자들이 원하는 사회서비스 간 간극을 보완하고자 제시된 새로운 사회서비스 모델
  - HMR 서클은 노인들이 외롭지 않고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됨
- 운영
  - 사회적 기업으로 4명의 스태프와 30명의 자원봉사자, 도우미로 운영(회원도 도우미가 될 수 있어 서로를 돕는 주체적 존재로 봄)
  - 회원제 운영. HMR서클은 575명의 회원이 있고 400명 이상이 적극적인 회원으로 활동(회비£20~ £50)
  - 서클 자체적으로 도우미와 자원봉사자에 대해 교육프로그램 진행
- 서비스 내용
  - 전화 또는 이메일로 자신의 지역 서클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면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실질적인 문제 해결 (정원손질, 집수리, 정기적 돌봄 체크, 외출도움, 기술적 도움(컴퓨터, 인터넷, 핸드폰, 소셜미디어 등)
  - 외출, 식사, 가이드 산책, 관광, 공예, 음악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 같은 관심사를 가진 회원들과 클럽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
  - 공급업체에 회원카드를 제시하면 할인 혜택 제공(택시회사, 살롱, 카페, 레스토랑, 마사지, 볼링장 등)
- 보조금 지원운영의 한계
  - 2009년 Southwark 서클 설립을 시작으로 2013년까지 영국에 7개의 서클이 생겼으나 현재 HMR서클만 운영되고 있음
  - Southwark 서클은 Southwark Council로부터 3년 동안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었으나 예산 삭감 이후 2014년 재정난으로 중단
  - HMR서클은 협동조합 운영의 전문성을 갖고 있으며, 재정마련을 위해 제공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수입창출 할 수 있는 사업을 운영

## 2. 생활 서비스 제공 모델

### 사례3. 미국 NORC-Supportive Service Program(NORC-SSP) 모델

- 개념
  - NORC(Naturally Occurred Retirement Community) : 노인주택으로 계획되지 않았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자택에 계속 머물던 주민들이 고령화되고 새로운 노인 이주 노년인구 비율이 상당히 높아진 지역을 지칭 (Ormond, Black, Tilly, & Thomas, 2004)
  - NORC-SSP 모델: 은퇴자들이 본인의 집과 커뮤니티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역 내 서비스자원을 재구성하고 전달체계를 효율화함(김선자, 2010)
- 운영
  - 추진기관: 북미유대인연맹/시범 커뮤니티에 기술적 지원 제공. 이니셔티브를 위한 기획, 이행, 평가 수행 및 지속가능성 자료 개발
  - 지역 운영주체: 각 지역별로 대표 커뮤니티 기반의 비영리 사회복지단체가 관리(예: 유대인 가족서비스)
  - 지역운영주체 역할: 파트너십 구축, 재정관리, 서비스 조율 등 담당
    - : 노인들과 건물주 및 관리자, 지역 서비스 제공자, 재정지원자, 지역 사회파트너 기관들이 구축하는 파트너십을 중심으로 운영됨
  - 자원봉사자 활동 중심으로 운영: 회원의 집을 방문에 집안의 소소한 일들을 해결
- 지자체 및 정부차원의 지원
  - 미 의회는 2002년부터 26개 주에 약 50개의 NORC-SSP 시범프로젝트 지원 → Aging in Place를 위한 커뮤니티혁신 프로그램을 노인복지법 개정안에 포함(2006)이후 지원 증액(2010년 500만 달러 지원)
  - 평균적으로 NORC 프로그램의 주 재정출처는 정부보조금으로 예산의 2/3 차지
  - 초기 정부나 자선재단 등 외부재단에 의존해 출범한 후 내부적 재정해결로 전환하는 경향을 보임(Vladeck, 2004)
    - : 정부보조금, 자선단체 기부금, 주거시설 소유자가 제공하는 현물(예: 사무공간), 회비

## 2. 생활 서비스 제공 모델

### 사례3. 미국 NORC-Supportive Service Program(NORC-SSP) 모델

- 서비스 내용
    - 입주민들이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들을 스스로 파악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리소스 가이드를 만들어 배포
- | 구분        | 주요내용  |
|-----------|---|
| 보건 및 헬스케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트니스 프로그램, 커뮤니티 걷기 프로그램, 낙상 예방 프로그램 등 헬스케어 관리</li> <li>· 혈압검사, 영양지원, 건강 교육 워크숍 제공 등 개인의 건강관리에 관한 교육 및 정보제공</li> <li>· 미드 맨허튼, 퀸스, 브루클린 등 지역 보건요리기관과 협력 프로그램 운영 사례도 있음</li> </ul>   |
| 생활 서비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 가사일, 돌봄, 단체 급식 및 식사배달 등 정보제공 및 소개</li> <li>· 집주인이 재료를 제공하면 자원봉사자가 필터교체, 깨진 창문 교체, 페인트 도색 등 간단한 집수리 지원</li> <li>· 교통이용이 어려운 노인 대상으로 차량운행 자원봉사자와 연계(자원봉사자에겐 주행거리 소요시간에 따른 일정액 보상)</li> </ul>   |
| 커뮤니티 활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 제공을 통해 지역 내 관계 구축을 통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li> <li>· 노인을 주변으로부터 도움만 받는 존재가 아니라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적극적 시민' 으로 설정 (예: 노인봉사자들이 장보기, 병원가기 등의 일상생활 수행을 도움)</li> <li>· 지역참여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신체활동, 봉사활동, 클럽활동 참여지원, 이웃과 정기적 만남을 위한 워크숍 진행</li> </ul> |
- 이용 노인의 만족도
    - 2006년 24개 NORC프로그램 참여자 462명을 대상 만족도 조사결과(Bedney et al.,2010)
      - 사회적 관계 향상 및 사회 참여가 증가 했다 84~88%
      - 커뮤니티 서비스에 대해 전보다 많이 알게 되었다 95%
      - 지역사회 봉사 활동이 늘었다 48%
      - 주관적 건강 향상 71%
      - 지역사회에 계속 머물 확률이 높아졌다 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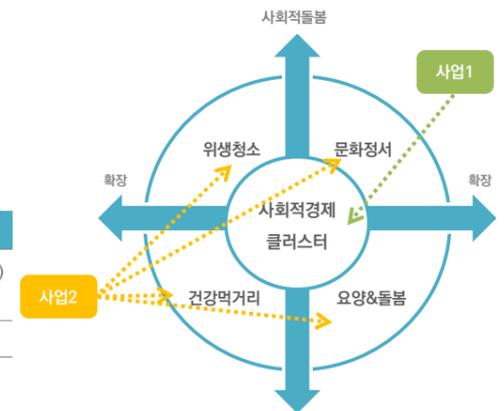
## 2. 생활 서비스 제공 모델

### 사례4\_광진구 광진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돌봄클러스터

- 개념
  -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 돌봄을 실현하고자 사회적경제기업 클러스터를 구성하여 믿을 수 있는 돌봄서비스를 one-stop으로 관리, 제공 및 모니터링하는 사업
  - 광진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39개 사회적 기업/ 690명 종사자/ 2000명의 조합원

- 사업내용
  - 사업1: 사회적경제기업 클러스터 성장 전략을 통한 돌봄산업 활성화
    - 사회적경제기업 클러스터를 통한 믿을 수 있는 돌봄서비스 제공
    - 이용자 측면에서 원스톱 종합 돌봄서비스 제공
  - 사업2: 사회적경제기업 클러스터 서비스·상품설계

기업명	주요내용
(주)복지유니온	· 영양돌봄 및 연하도움식사(저작 및 삼김장애 도움식) 리뉴얼
(주)인스케어코어	· 주택청소, 위생관리서비스, 특수청소상품 리뉴얼
시니어협동조합	· 인력 및 강사양성프로그램 리뉴얼 · 신규돌봄사회서비스 개발
(사)한국아동국악교육협회	· 치료·정서형 돌봄프로그램 개발



자료: 광진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2016, "광진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돌봄+사업소개"

## 2. 생활 서비스 제공 모델

### 시사점

#### 1 노인대상 생활서비스 및 돌봄서비스를 커뮤니티 내에서 원스탑으로 제공

- 일상의 문제를 커뮤니티 내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 밀착형 사례
- 지역 내 다양한 서비스 공급업체, 자원봉사자 등을 관리·연계하는 매개조직
- 회비 및 유료서비스 제공으로 자생적 모델 구축을 위해 노력하나 안정적 서비스 운영을 위해 수입창출 방안 모색

#### 2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 제공으로 사회적 안전망 구축

- 자원봉사활동과 연계 및 관련 기관·주체들과 파트너십 형성
- 노인은 돌봄의 객체일 뿐만 아니라 주체
- 지역사회 참여 교육프로그램, 워크숍, 봉사활동 참여 등으로 커뮤니티 활성화
- 지역사회 디자인에 있어 일상을 활성화하고 동네에서 관계를 맺는 등의 다양한 삶의 요소 고려 필요

## 3. 커뮤니티 비즈니스

### 사례1. 성북구 길음동 키득키득 카페(마을기업)

- 형성배경
  - 2012년 놀토가 시작되고 경력단절 엄마들이 주축이 되어 아이들 대상 문화예술교육을 하기 위해 마을기업을 만들었으나 기업 형태와 맞지 않아 다른 방식의 운영을 선택함
  - 2014년 길음복지관의 제안으로 어르신 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주민들과 아이들에게 안전한 간식과 음료를 제공할 수 있는 카페 운영
  - 주민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길음소리마을센터 1층에 위치
- 운영
  - 길음복지관과 연계 협력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5명의 어르신들이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음
  - 노인 1인당 주 2회 3~4시간씩 근무/월 평균 21만원(1인당 5만원의 보조금을 받고, 나머지 부분을 카페 수익에서 충당)
- 다양한 기관 및 연령 주체들의 협업을 통한 안정적 운영구조 마련
  - 복지관에서 어르신일자리 보조금 지급
  - 마을부역에서 활동하는 3~40대 젊은층이 새로운 메뉴 개발 및 어르신 교육을 진행
  - 길음소리마을센터 이용자 및 동네아이들과 학부모를 주 소비자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
  - 카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다자간협동조합으로 운영
    - : 카페 안에 친환경 먹거리 판매장을 만드는 조건으로 인테리어비용을 생산자 협동조합에서 지불
- 노인일자리 전문성 확보의 어려움
  - 복지관의 노인일자리 지원은 많은 분들의 참여가 목적이기 때문에 전문성 향상에 한계
  - 키득키득 카페 2호점은 노인 근무 인원을 줄이고 근무시간을 늘려 월급을 올리고 전문성을 향상 시킬 계획

## 3. 커뮤니티 비즈니스

### 사례2. 금천구 민들레워커 협동조합(마을기업)

- 형성배경
  - 여성 고령인구 비율이 높고, 안전문제와 쓰레기 등의 위생문제가 심각했던 시흥5동을 대상으로 여성친화만들기 사업진행
  - 암탉우는마을 조성 후 지속적 환경관리 유지를 위해 마을 여성 어르신들과 경력단절 여성들의 일자리 마련을 위해 협동조합 설립
- 운영
  - 조합원 26명 중 노인 5명이 함께 참여
  - 금천구청 1층에 카페와 공방을 운영하고 조경식재 사업 운영. 조합원과 조합원가족 대상 수공예 및 원예 기술, 바리스타 교육 제공
  - 쿠키, 앞치마, 예코백 등 생활용품 등 조합원들이 만들면 일한만큼 일당을 받아가는 구조
  - 노인들이 정교한 수공예는 참여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간단한 뜨개질 제품 제작(평균 월 20만 원 정도 수입)
- 지역 관계망 형성 및 지역사회 기여활동
  - 수익금으로 분기별로 조합원 할머니와 지역 할머니들과 식사자리 마련
  - 암탉우는마을 어르신과 아이들 대상으로 소통 문화프로그램 '서로 넘어서' 진행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정위탁을 통해 수익금의 일부를 시흥5동 아픈 아이들에게 약값 기부



## 3. 커뮤니티 비즈니스

### 사례3. 서울형 노인일자리\_우리동네 아이돌봄 기동대

- 사업개요
  - 추진주체: 보건복지가족부, 서울시가 지원하고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가 추진
  - 사업내용: 자녀 등하원, 자녀가 아플 때, 부모님이 긴급 외출을 하거나 모임을 할때 필요한 돌봄서비스 제공
  - 참여대상: 60세 이상 어르신들 90명 참여하며 40시간 이상 전문교육 진행
  - 근로조건: 월 30시간 이상 근무, 시급 8,000원, 산재보험 배상보험 등 가입
- 서비스 내용
  - 이용대상: 생후 6개월 - 9세까지의 영유아, 아동/ 이용시간: 07:00 - 20:00
  - 서비스 지역: 영등포구, 서대문구, 강서구, 강북구, 성북구, 성동구, 광진구 및 인근지역

종류	업무내용	가격
등하원 돌봄	· 등하원 지도, 식사 및 간식 수발, 준비물 챙기기 학원 보내기 등	· 시급 8,000원/ 기본 2시간 이상 · 월급제는 별도 산정
아픈아이 돌봄	· 수두, 폐렴, 수족구병, 정염, 일시적 상해 등으로 어린이 집, 학교를 가기 어려운 자녀 수발	· 시급 8,000원 · 1일 10시간 이내
모임활동 지원	· 부모님들이 모임, 교육 수강, 회의, 행사 등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동행 자녀를 집단으로 돌봄, 놀이와 간식 수발, 안전지도	· 시급 10,000원 · 기본 2시간 이상
1회성 돌봄	· 자녀 병원 동행, 부모의 긴급 외출, 부모 질환으로 아이를 돌보기 어려울 때, 양육자의 휴식 등 1회성 긴급 돌봄	· 시급 8,000원 · 기본 3시간 이상

### 3. 커뮤니티 비즈니스

#### 시사점

#### 1 노인일자리와 커뮤니티 비즈니스와의 연계

- 키득키득: 복지관에서 진행되는 어르신일자리 사업과 마을기업을 연계하여 커뮤니티 비즈니스 운영

#### 2 다양한 연령층 및 기관의 협업을 통해 안정적 운영구조 마련

- 복지관에서 어르신일자리 보조금 지급하고, 마을부역에서 새로운 메뉴 개발 및 어르신 교육을 진행
- 마을예술창작소를 이용하는 부모와 아이들이 주 소비자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

#### 3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및 교육제공

- 만들레워커: 정교한 수공예는 노인이 하시기에 어려움이 있어 간단한 뜨개질 제품제작 및 원예관리 작업 제공
- 키득키득: 예쁜 베이커리나 음료 보다는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컨셉으로 어르신들의 참여 가능

### 3. 커뮤니티 비즈니스

#### 시사점

#### 4 복지적 관점 일자리 제공의 한계점

- 노인 1인당 월 약 22만 원(보조금 5만 원)의 수입 구조로 보조적인 소득 보장
- 생계비 욕구가 강한 노인에게는 부족한 금액
- 근무시간이 너무 짧아 전문성과 책임감을 가지기 어려운 구조

#### 5 노인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가치 부여 필요

- 노인들이 참여하는 단순노동에 대해 사회적으로 어떤 가치를 가지는지 심어주는 것이 중요
- 예: 할아버지 택배사업단의 경우 단순노동이 아닌 혼자 사는 여성이나 아이들만 있는 집에 안전하게 택배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회적 가치부여가 필요

### 4. 사회참여·소통

#### 사례1\_일본 오키아이치시 고립화 방지 거점공간 조성

- 독거노인의 고충과 바람

- 2008년 노년사업 보조연구사업 "고립화 방지를 위하여"에서 독신생활가구 고령자 부부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진행 결과,

#### 고립화 방지를 위한 거점공간의 필요성과 역할을 파악



사진출처: 서울시복지재단, 2016, 「2016 고령친화서울 국제 포럼 고령친화도시 협력과 발전방향」 자료집 중 니시모토유키오 "일본의 언제까지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마을만들기 실천", P.113.

### 4. 사회참여·소통

#### 사례1\_일본 오키아이치시 고립화 방지 거점공간 조성

- 고립화 방지 거점으로 필요한 기능

- 교류의 장: 지역주민의 모임장소 마련, 새로운 활동을 위한 거점공간
- 종합 상담: 가까운 상담창구로서 자치회, 민생위원회 등의 다양한 지역단체와 연계, 의료·요양과 연계
- 커뮤니티 식당: 가까운 곳에서 저렴하고 영양 균형 잡힌 식사, 배식서비스, 저소득자 대상 대책, 치료식에 대한 대응

- 오키아이치시 내 거점공간 조성

- 단지 내 상가 빈 점포를 활용하여 고립화 방지 거점공간 조성
- 저렴한 가격의 식사제공 및 생활 문제에 대한 상담 진행, 생활서비스 사업 진행

- 운영준비위원회 구성을 통한 주민사업 기획

- 지역의 자치회장, 민생위원, 노인회, 사협 등 대표자를 중심으로 두 달에 한번 모임 진행
- 거점공간을 어떻게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 및 지역의 고충에 대해 배우는 기회가 됨
- 지역민들과 대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지역을 이해하고 지역에 알리는 작업 진행
- 초기에는 시설활용이나 운영방식에 대한 논의가 중심이었지만, 횡수가 늘어나면서,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부족한 서비스 자원 등이 주요 논의거리가 됨



## 4. 사회참여·소통

### 사례2\_광주 광산구 더불어락 노인복지관

- 형성배경 및 개요
  - 2005년 4월에 개관하여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되었으나 위수탁기간이 만료되면서 위탁단체가 재위탁을 포기
  - 2011년 광산구 구청 공립공영시설로 전환하면서 노인만을 위한 복지시설에서 마을 공동체 거점 공간으로 변화
  - 운영에 대한 권한을 이용자들이 갖고 행정이 돕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 방식에 변화
  - 낮에는 노인 복지관, 밤에는 주민들의 동아리 활동과 자치활동 공간으로 사용, 주말에는 청소년 학교 운영
- ‘더불어락 자치회’ 운영을 통한 어르신들의 자치운영구조 마련
  - 노인들을 복지대상자가 아닌 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당사자로 설정하면서 ‘더불어락 자치회’ 운영(3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
  - 복지관 사업계획 수립,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의결·심의, 감사채용, 행사 기획, 준비, 운영까지 어르신들이 주도적으로 진행
- ‘더불어락 대동회’를 통한 직접 민주주의 실현
  - 의제를 어르신들이 직접 제안하고 발표를 하면 대동회에 참여자들이 카드를 들어 그 자리에서 찬반투표를 진행하는 방식
  - 복지관 운영, 마을 주요현안까지 주민과 어르신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자유롭게 오가는 의결기관
  - 예: 좁은 주차장을 넓혀 달라는 민원에 한달에 한번 차 없는 날을 만들자는 제안이 찬성표를 얻어 주차장 민원문제 해결



## 4. 사회참여·소통

### 사례2\_광주 광산구 더불어락 노인복지관

- 주민들의 소통공간 더불어락 북카페(작은도서관)
  - 노인 263명이 운남골 작은도서관 건립위원회를 만들어 4900만 원의 후원금과 재능기부를 통해 통해 작은도서관(북카페) 조성
  - 복지관은 공간과 행정지원만 제공. 북카페를 건립하면서 노인들이 지역복지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주체라는 인식 확산
  - 평일 일과시간에 이용이 가능한 노인전용공간에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야간과 주말 운영
  - 마을학교, 어르신 리더십 강좌, 어르신 글짓기 교실, 작은콘서트, 공정무역토크, 어르신과 학부모독서회 모임, 지역주민 작품 전시회, 영화상영, 어린이 인문학 학당 등 어르신 외에도 젊은 학부모,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
- ‘더불어락 협동조합’ 사업을 통한 취약계층어르신 일자리 창출
  - 두부마을(두부공장), 밥상마살(팔죽가게), 더불어락 카페(공정무역 카페) 등 3개 가게를 협동조합으로 운영
  - 더불어락 협동조합의 조합원 26명(직원조합원 18명, 40대 4명, 60대 14명)

자료: 국회의원 유은혜-진선미 주희 의원, 2017,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분권시대 지역문화가 열쇠다 자료집 중 강원원, “춧불시미이 여는 주민자치의 현장”, PP.23-36.



## 4. 사회참여·소통

### 사례3\_칠곡군 늘배움학교

- 형성배경 및 개요
  - 칠곡군은 평생학습특별시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평생학습과 관련된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음
  - 2000년 교육문화복지회관이 개관하면서 평생교육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
  - 교육문화복지회관에서 성인 문해교육 2006년 처음 시작해 2016년 기준 22곳에서 운영
  - 어르신들이 글을 모른다고 말하면 수치심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한글학교 대신 “칠곡 늘배움학교”라는 이름으로 교육진행
- 마을회관이 주민 거점공간으로 변화
  - 교통이 불편한 농촌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어르신들이 사는 마을 속으로 직접 들어가 마을회관에서 프로그램 운영
  - 일주일에 두 번씩 마을회관에서 늘배움학교를 운영하면서 마을회관이 마을 사람이 모이는 공공의 장소가 됨
  - 수업이 있는 날이면 같이 밥을 지어먹고, 공부하고, 프로그램을 진행.
  - 마을사람들이 모이면서 수업이 있는 날에는 마을의 주요안건을 논의하고 마을 행사를 공지함
  - 늘배움학교가 개설되면서 회관을 상시적으로 열었고 지역주민이 교류하면서 친밀감을 만들어가는 공공장소가 됨
- 지역에 뿌리 내릴 수 있는 주민강사 선출
  - 주민강사는 주민과 주민을 연결하는 촉진자이자, 어르신들이 스스로 자신의 내러티브를 연출할 수 있도록 돕는 스토리텔러 역할
  - 주민강사는 ①칠곡군에 거주하고 ②칠곡교육문화회관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대학 출신자로 선출
  - 칠곡군은 영남대학교와 함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강사 자격증 과정을 신설해 30~40대 여성을 중심으로 주민강사를 양성
  - 어르신을 교육의 대상이 아니라 교육의 주체로 함께하는 과정설계가 중요 “그 분들의 지혜와 삶의 기술을 공유하려는 과정 설계가 중요”
  - 주민강사들은 강사 활동뿐 아니라 마을리더로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음

## 4. 사회참여·소통

### 사례3\_칠곡군 늘배움학교

- 성과 및 참여자의 변화
  - 칠곡군 할매 시인 357명, 710편의 시, 참여자 평균 연령 79세 / 2015년 시집 “시가 뭐고?” 출판
  - 75세 할머니 12명으로 구성된 어로리 “보람할매극단” 창단\_2015 실버문화페스티벌 최우수상 수상
  - 늘배움학교에서 성장한 어르신들이 칠곡군 인문학도시 조성사업에서 마을리더로 참여
  - 어르신들이 교육대상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주인공, 마을의 주인으로 성장

자료: 고영작-안태호, 2017, 「노년 예술 수업」, 서해문집, pp.68-106.



## 4. 사회참여·소통

### 시사점

#### 1 거점공간 조성을 통한 참여기회 확대

- 주민의 일상생활 내 욕구와 문제점 청취에서 출발
  - 일괄 모델이 아니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거점공간 조성 필요
- 자치운영구조 확립(운영위원회, 자치회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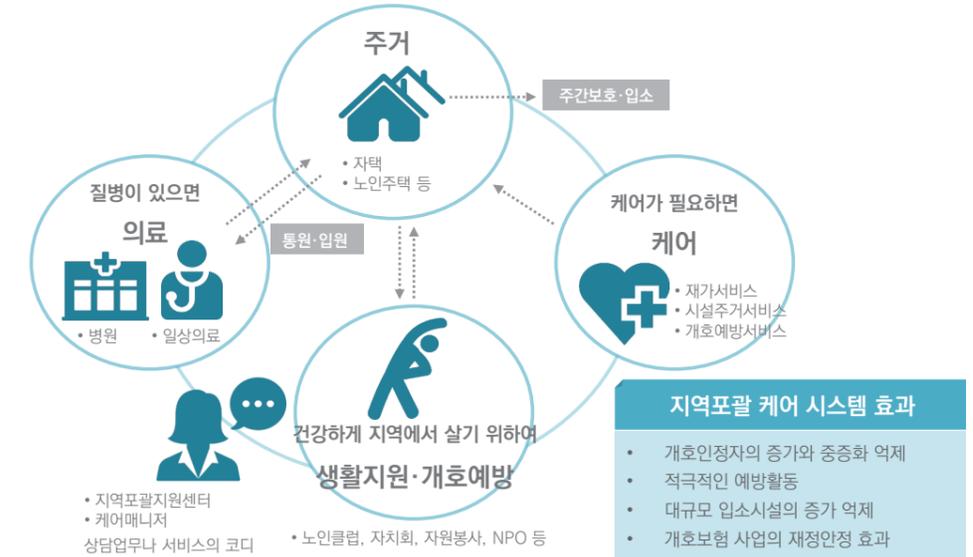
#### 2 주민 거점공간으로 확대

- 거점공간이 지역을 위한 상시 오픈공간화 하면서 주민교류와 친밀감을 확대하는 공공장소화
  - 세대별 주요 이용시간대 분화로 노인전용공간에서 지역주민 이용공간으로
- 노인이 지역복지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주체라는 인식확대
- 어르신일자리(협동조합) 창출, 동아리(어르신극단)활성화 등으로 커뮤니티 강화

## 5. 지역단위 계획수립

### 사례1. 일본 도요시키다이 프로젝트: Aging in Place

- 지역포괄 케어 시스템
  - 30분 내에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일상생활권이 단위 의료, 간호, 생활지원, 질병예방, 주거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주민들이 오랫동안 살아온 지역에서 나이가 들어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 5. 지역단위 계획수립

### 사례1. 일본 도요시키다이 프로젝트: Aging in Place

- 개념
  - 일본의 오래된 임대아파트 단지인 도요시키다이 단지를 산·관·학이 협력하여 **초고령 사회 맞춤형 마을**로 재건축한 사례
- 사업내용
  - '언제까지나 자택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지역포괄케어시스템**'과 '**재택의료체계**' 구축
  - '언제까지나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고령자들의 세컨드 라이프 지원사업**' 추진
    - : 단카이 세대를 위한 일자리 모델로서 '가사와농원 유한사업조합'을 만들어 체험농장사업, 관광농장사업, 농산물가공업 등 추진
    - : '커뮤니티 키친'에서 건강한 고령자가 다른 고령자를 돕거나, 방과 후 학교를 만들어 고령자가 보조교사로 취업
- 추진체계: 도요시키다이 지역 고령사회 종합연구소



▲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거점시설로 설립된 지역 의료연계센터

## 5. 지역단위 계획수립

### 사례2\_미국 뉴욕시 고령친화도시 프로젝트(Age-Friendly NYC)

- 개념
  - 뉴욕 의대(New York Academy of Medicine, NYAM), 뉴욕시, 뉴욕시의회,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합작 기구
  - 세계보건기구(WHO)의 고령친화도시 모델을 적용하여 발전시킨 사례
- 현황
  - 13개의 고령친화 이웃(Age-Friendly Neighborhoods) (브롱크스 2개, 브루클린 5개, 맨해튼 3개, 퀸스 2개, 스타튼 아일랜드 1개 등)을 만들어 각 동네 별로 고령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FIRST, WE LISTEN** 우리는 지역사회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노인들에게 그들의 삶의 전문가로서 그들의 일상생활에 대해 질문하고, 그들의 의견을 더 자세히 진술한다.
- SECOND, WE PARTNER** 우리는 협의회 구성원, 지역 이해관계자 및 노인과 함께 변화를 촉진시킨다.
- THIRD, WE ACT** 우리는 우리가 들었던 것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자세한 action plan을 설계하고 실행한다.
- FORTH, WE PUBLICIZE** 우리는 지역사회와 도시 전역에 연령친화적인 우수 사례를 전파하기 위해 결과와 성과를 알린다.

▲ 13개의 동네가 각각 단기·중기·장기 계획 세워 고령친화적 환경 조성 위해 노력

◀ 뉴욕시의 13개 고령친화이웃

## 5. 지역단위 계획수립

### 사례2\_미국 뉴욕시 고령친화도시 프로젝트(Age-Friendly NYC)

- 사례: Age-Friendly NYC 커뮤니티 단위 Action Plan 사례

구분	공동내용	세부사례 Council District 6, Upper West Side
단기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인을 위한 시설, 프로그램 등과 관련된 자원 가이드 작성</li> <li>• 세대 통합과 문화적, 사회적 활동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버디 시스템 만들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령친화적인 자원 및 특성에 맞는 지역사회의 자원 가이드 작성(의료시설, 공중 화장실, 배달 서비스 등)</li> <li>• 세대 통합에 초점을 둔 버디 시스템 만들기</li> <li>• 환자 옹호, 권리, Health Care Proxy forms를 포함한 중요한 법적 건강 관련 서류와 관련된 정보 제공</li> </ul>
중기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령친화적인 사업활동 교육, 자원 및 촉진(노인대상 사업, 할인 등)</li> <li>• 도서관, 교통수단 등 인프라 평가 및 개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회의 기업들에게 노인대상 할인과 프로그램을 하도록 지원 및 격려하고 시니어서비스 사업 유치</li> <li>• 노인들이 보다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뉴욕 공립 도서관의 서비스와 프로그램 촉진 및 옹호</li> <li>• 현재의 교통수단들을 분석하고 서비스 개선을 요청하고 적절한 기관을 찾기 위한 요구사항 목록 작성</li> </ul>
장기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연령친화적 민감성 증진 위한 훈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인들에게 더 나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Amsterdam Houses와 협력</li> <li>• 버스 운전기사의 대중교통의 연령친화적인 문화와 존중, 민감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연령친화적 훈련 개발 및 실행</li> </ul>

## 6. 종합

### 1 노인의 일상생활을 구성하는 다차원적 요소들의 종합적 고려 필요

- 노인은 신체적 · 정서적 · 경제적 특성상 살던 곳에서 늙어가기 희망
- 신체활동과 생활의 편의를 높이는 물리적 환경개선과 보건서비스는 기본
- 그러나 물리적 환경개선 차원에 머무는 것은 불완전하며, 생활서비스, 노동, 사회참여, 소통 등 사회적 환경 구축도 함께 고려해야
- 지역(커뮤니티)의 특성에 따라 우선순위나 구현방식은 달라질 수도 있어
- 커뮤니티별 수요조사 및 계획 수립 필요

### 2 노인만이 아닌 노인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대통합적 관점

- 고령자들은 부양의 대상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적극적 주체
- 직업 · 사회기여 · 소통 등의 기회를 고령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공동체가 활성화되는 효과
- 이러한 가치가 지속가능성을 갖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적 네트워크 · 파트너십 구축 및 이를 위한 정책지원 필요

## 5. 지역단위 계획 수립

### 시사점

### 1 '살고 있는 지역에서 안심하고 늙어가기' 위한 커뮤니티 계획 수립

- 지역의 욕구와 필요에 기반한 커뮤니티 단위 액션플랜 수립
- 민·관·학 협업 시스템 구축

### 2 일상생활권 내에서 필요한 서비스와 생활기반을 종합적으로 제공

- 부담 가능한 주거 및 생활서비스 제공
- 교통환경의 개선
- 건강관리, 증진 프로그램 및 지역사회 돌봄
- 지역 내 관련 시설들(도서관, 시니어센터 등)과의 파트너십 형성

### 3 고령자들이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주체라는 인식

- 지역사회에 연고가 없는 퇴직자들도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 마련
-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 세대통합적 접근

## 참고문헌

- 정은하, 2016, 해외의 고령친화도시 정책 사례와 시사점, 서울복지재단(고령친화적 교통시설).
- 윤민석, 2016, 서울시 장애인 바우처택시 도입 필요성 진단, 서울연구원 (바우처택시).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6, 지역어르신과 함께하는 마을재생(노인놀이터 및 노인친화공원).
- 서울시복지재단, 2014, "프랑스 · 독일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 서울시복지재단 해외출장보고서(독일 시니어대상 슈퍼마켓 사례).
- 희망제작소 홈페이지 '활동-소식' 게시글, "안신숙의 일본통신 #42" 2016.07.15.(일본 도쿄시카다이 프로젝트 사례).
- 김선자, 2010, 서울의 고령친화도시 추진 전략, SDI 정책리포트 제64호, 서울시정개발연구원(서비스제공모델).
- 서울시복지재단, 2016, 「2016 고령친화서울 국제 포럼 고령친화도시 협력과 발전방향」 자료집.

## 사진출처

- 칠곡 보람할매연극단: 한겨레, 2015.10.13일자, "시골 할매들 서울 무대도 마~ 별거 아니네"(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712703.html)
- 광진구 광산구 더불어락: 더불어락 노인복지회관 홈페이지(http://www.gsnoir.or.kr/).
- 서울시복지재단, 2016, 「2016 고령친화서울 국제 포럼 고령친화도시 협력과 발전방향」 자료집 중 니시모토유키오 "일본의 언제까지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마을만들기 실천"

감사합니다

---